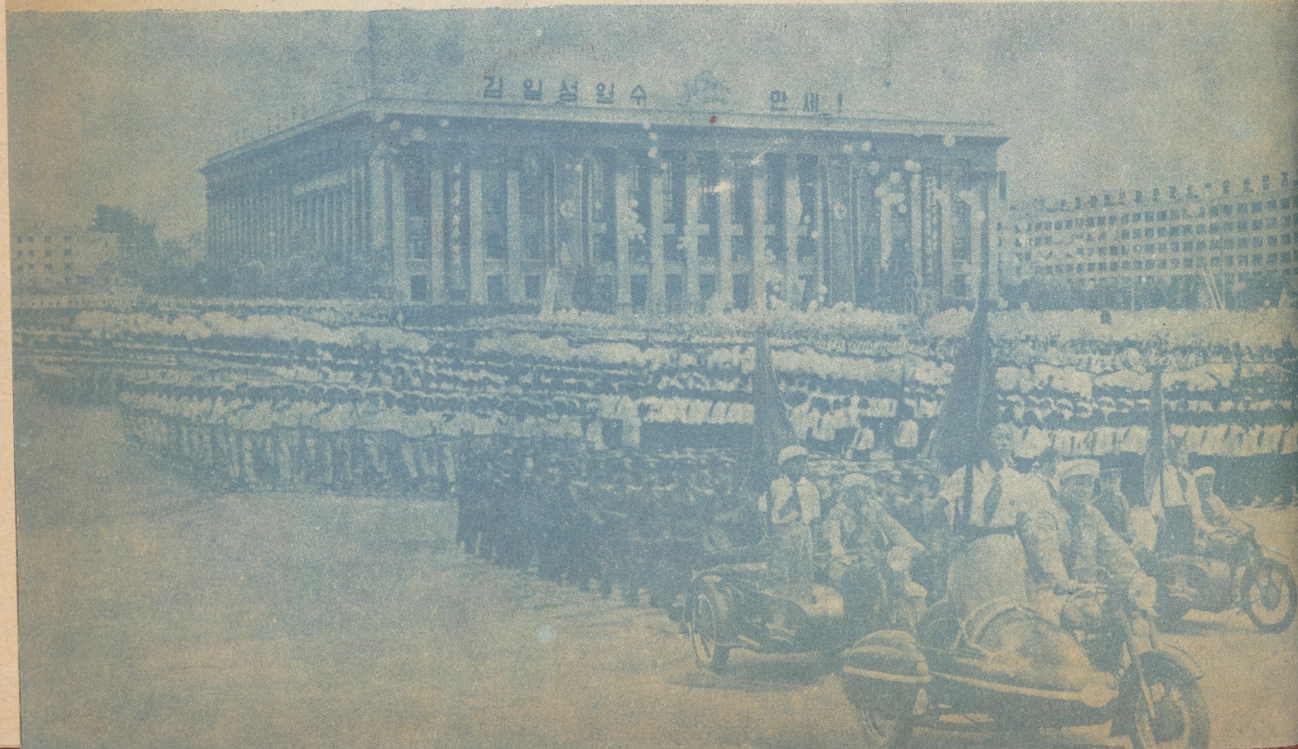
1961. 7

# 소년단

...우리 어린이들은 조선 인민의 기쁨이며 희망이다.

...우리 소년단원들의 앞길에 영원한 행복이 있으라!

조선 소년단 창립15 주년을 맞이하여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보내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에서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소년단 창립15 주년 기념 전국 소년단 련합 단체 대회에서의 분렬

## 소년단 7호 내용

### 조선 소년단 창립 15 주년을 맞이하여

###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보내는

#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는 조선 소년단 창립 15 주년을 맞이 하여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은 당과 번영하는 사회주의 조국의 품 속에서 김 일성 원수의 참된 아들딸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다.

조선 소년단은 지난 열 다섯 해 동안 자랑찬 길을 걸어 왔다.

조선 소년단은 당과 김 일성 원수의 가르침을 높이 받들고 자라나는 후대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과 혁명 전통 교양을 강화함으로써 소년단원들로 하여금 학습에서와 사회주의 건설에 떨쳐 나선 어른들을 도와 주는 사업에서 모범이 되도록 하여 그들을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로 준비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조선 소년단이 창립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소년단 대렬에서는 백 여 만의 민청원들이 자라났으며 소년단 생활을 겪친 수 많은 민청원들은 영광스러운 로동당 대렬에 들어 섰다.

지난날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이 이 땅에 전쟁의 불을 질렀을 때 소년단 대렬에서 자라난 수 많은 민청원들은 당과 조국을 위하여 우리 나라 력사에 길이 빛날 위훈을 세웠으며 정전 후에는 미제에 의하여 혹심하게 파괴된 인민 경제의 복구 건설에서 무비의 영웅성을 발휘하여 거대한 공훈을 세웠다.

그들은 오늘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초소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충성을 바쳐 일하고 있다.

당 중앙 위원회는 15 년 동안 조선 소년단이 이룩한 성과들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게 생각하며 이를 높이 평가하고 찬양한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 밑에 우리의 귀중하고 사랑스러운 꽃봉오리들인 어린이들에게 더 좋고 훌륭한 공산주의 락원을 물려 주기 위하여 땀을 흘리고 있다.

우리 당은 전쟁이 끝난 어려운 시기에 푼전을 쪼기여 수 많은 학교, 아동 공원, 야영소들을 건설하였으며 오늘에는 화려하고 웅장한 소년 궁전도 건설하고 있다.

오늘 어린이들에게는 보람찬 행복의 보금자리가 펼쳐져 있다.

우리 당은 그대들이 미래를 걸머지고 나아 갈 참되고 슬기로운 당의 아들딸로 씩씩하게 자라나고 있는 것을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다.

소년단원들은 누구나 다 마음껏 배우며 흥겹게 일하며 재능껏 발전할 수 있는 우리의 귀중하고 자랑찬 사회주의 제도와 영광스러운 자기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여야 한다.

소년단원들은 김 일성 원수 항일 빨찌산들이 오랜 세월 원쑤와의 피어린 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혁명 전통을 배우고 본받으며 슬기로운 선조들이 남긴 고귀한 문화 유산들을 더욱 빛나게 이어 나가야 한다.

소년단원들은 동무를 사랑하고 집단을 사랑하여야 한다.



어렸을 때부터 서로 돕고 이끌어 화목하게 지내며 동무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집단의 유익한 일이라면 서슴 없이 나서는 품성을 길러야 장차 훌륭한 공산주의자로 될 수 있다.

소년단원들은 모든 힘을 다하여 더 열심히 더 잘 학습하여 우등 최우등의 성적을 쟁취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두가 쓸모 있는 지식과 기술을 배워 여러 모로 발전된 앞날의 믿음직한 일'군이 되여야 한다.

소년단원들은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애호하여야 한다.

오랜 세월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이 피땀으로 이룩하여 놓은 모든 것은 다 그대들의 장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우리의 공장과 농촌도, 그리고 공원과 도서관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집도, 우리들이 공부하는 학교도 다 사랑하고 아껴야 한다.

소년단원들은 로동을 사랑하여야 한다.

로동은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모든 것을 낳게 하는 가장 영예로운 일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락원도 로동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소년 시절부터 로동에 관습된 아름다운 풍모를 갖추어야 한다.

소년단원들은 언제나 정직하며 나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따를 줄 알아야 한다.

또한 웃 어른들을 존경하고 어린 동생들을 잘 가르치며 례절이 밝고 공중 도덕을 잘 지키는 아름다운 품성을 가져야 한다.

소년단원들은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다져야 한다.

튼튼한 몸은 나라의 보배이다. 체육에 즐겨 참가하고 위생을 잘 지켜 튼튼한 체력을 가지며 어떤 곤난 앞에서도 겁을 모르고 태산과 바다도 가르고 나아가는 씩씩하고 용감한 사람이 되여야 한다.

소년단원들은 노래도 잘 하고 춤도 잘 추며 항상 명랑하고 즐겁게 생활하여야 한다.

소년단원들은 미래를 사랑하여야 한다. 그대들 앞에는 찬란한 공산주의 앞길이 활짝 열려져 있다. 그를 앞당겨 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라!

소년단원들은 소년단 생활을 잘 하여야 한다.

모두가 소년단 사업에 열성을 내여 재미 있게 참가하며 조직의 위임이라면 어김 없이 실천하는 규률 있고 생기 발발한 소년단원으로 되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 바쳐야 한다.

그리하여 모두다 《모범 분단》, 《모범 소년단》의 영예를 쟁취하라!

소년단원들은 우리의 행복을 해치려는 미 제국주의 원쑤놈들을 증오하며 항상 혁명적 경각성을 높여 원쑤와 투쟁할 줄 알아야 한다.

오늘 남반부 어린이들은 미제와 그의 앞잡이놈들의 발굽 밑에서 배우기는 고사하고 헐벗고 굶주리다가 거리에서 불쌍하게 쓸어지고 있다.

우리는 하루 바삐 미제를 물러 가게 하며 그 주구들을 타도하고 불행한 남반부 어린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싸워 나가야 한다.

우리 당은 어린이들을 무한히 사랑하며 귀중히 여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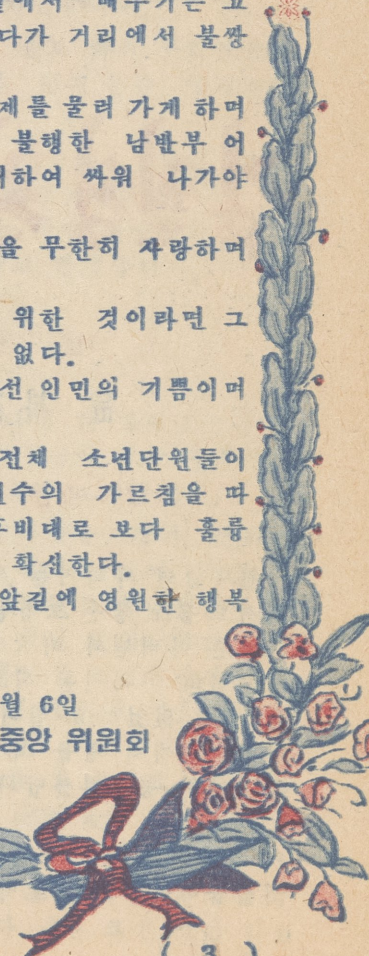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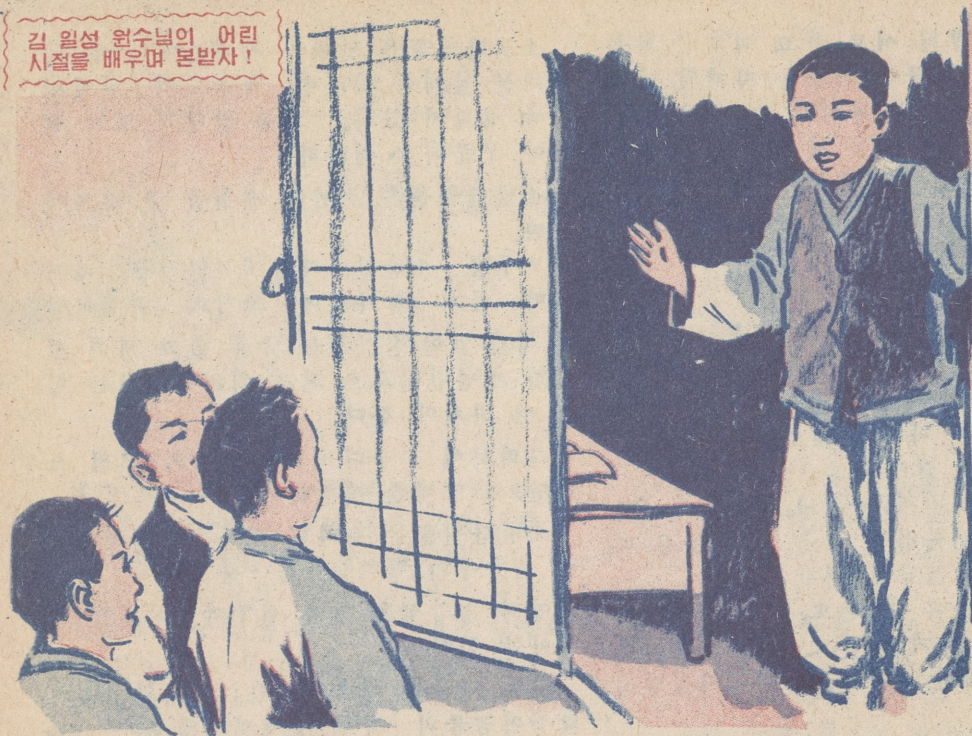
우리 당은 후대들을 위한 것이라면 그 무엇이건 아끼는 것이 없다.

우리 어린이들은 조선 인민의 기쁨이며 희망이다.

당 중앙 위원회는 전체 소년단원들이 우리 당과 김 일성 원수의 가르침을 따라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로 보다 훌륭히 준비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우리 소년단원들의 앞길에 영원한 행복이 있으라!

1961년 6월 6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 김 일성 원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윤 복진

그림 최 순천

## ☆ 그날에 배운 것은 그날에

원수님의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 학습에서도 몸소 좋은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삼촌 아버님과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 원수님의 아버지는 어느 하루도 책을 놓는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나오셔서 집에서 병을 치료 하시던 그날에도 부지런히 공부하셨답니다.

아버지는 학교 일과 나라를 찾는 큰 일에 몹시 바쁘신 가운데서도 언제나 독서를 하셨습니다. 짧은 토막 시간이라도 아껴 잘 리용 하셨습니다.

때로는 문'살이 히끄므레 밝는 줄도 모르시고 공부를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열심히 공부하는 한편 휴식도 운동도 적당히 하시면서 건강에 큰 관심을 돌리셨습니다. 원수님 아버지는 계획적으로 규칙적으로 학습하시였습니다.

어린 시절 원수님은 아버지의 이러한 모범을 본받아 그대로 실천하시였습니다.

원수님은 벌써 4~5세 때부터 글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서 우리의 글을 한 자 두자 배우시고, 다섯살 나시던 해에는 어려운 《천자 책》(한문)을 할아버지 앞에서 배우셨습니다.

첫 날은 한 자, 다음 날은 두 자, 어린 원수님은 놀랄만한 속도로 배워 나갔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웃 어른들은 놀랐습니다.

《불학이 문장이란 말은 옛말로 들어 왔는데 증손이가 바로 그사람이로군!》하며 감탄하셨다고 합니다.

《불학이 문장》이란 말은 배우지 않고서도 글을 잘 아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어느 사람이고 배우지 않고서 문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만 이 말은 어린 시절 원수님이 얼마나 재주가 뛰여 나셨었는 가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원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남달리 뛰여난 머리와 재주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뛰여난 머리와 재주는 어린 원수님의 끊임 없는 노력에 의하여 빨리 싹이 트고 잎이 피였고, 마침내 꽃이 피였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원수님의 부단한 노력이 뛰여난 머리와 재주를 빛내게 하였습니다.

원수님은 할아버지 앞에서 글을 배우실 때 언제나 똑바로 앉아 새'별 눈을 반짝이며 할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뜻을 귀담아 들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린 손자를 앞에 앉히시고 배워 주시였습니다. 그러면 어린 원수님은 책에 쓰인 글'자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앉아서 소리를 내여 똑똑히 받아 읽으시군 하였습니다.

이튿 날 새 글'자를 배우실 때는 할아버지는 반드시 시험 을 받으시군 하였습니다.

유년 시절 원수님은 놀음을 즐겨하셨고 동무들을 무척 좋아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습 시간에는 아무리 친한 동무가 찾아 와 재미 있는 놀이를 하자해도 《오늘 배운 글을 다 외우고 놀자꾸나.》 하고는 책을 덮고도 잘 외우게 되기 전에는 나가시지 않았다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어린 손자를 기특히 생각하시고 등을 툭툭 두드려 주시면서

《우리 증손이는 이댐에 큰 사람이 될거다.》하고 기뻐하셨다 합니다.

이렇듯 어린 원수님은 그날 배운 것은 그날에 다 알기에 힘쓰셨답니다.

원수님의 만경대 고향 집을 찾아 본 동무들은 잘 알리라고 생각됩니다. 원수님의 본가댁은 단간 방입니다. 그 많은 식구들이 한 방에서 살으셨습니다. 방은 좁은 방은 아닙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윙윙 물레를 저으시거나 활로 붕붕 솜을 타시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옆에서 어머니는 달각달각 무명을 짜시고 할아버지는 슥삭슥삭 새끼를 꼬으시며 툭탁툭탁 짚 신골을 치시군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어린 원수님은 언제나 정신을 가다듬어 학습에 열중하시였습니다.

그후 원수님이 중국 동북에서 혼자 돌아 오셔서 한해 가까이 공부하신 칠골 외가 댁도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그때는 오늘처럼 불도 밝지 못하였습니다. 가난한 집이라 전기'불은 구경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원수님은 언제나 침침한 기름'불 아래서 학습을 하시였습니다.

그러나 글을 읽는 어린 원수님의 마음은 보름'달 처럼 밝고 환했습니다.

## ☆ 배움의 천리' 길

원수님이 13세 나던 해 봄이였습니다.

뜻밖에도 어린 원수님이 중국 동북에서 만경대 고향 집에 돌아 오셨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압록강을 건너 천리도 넘는 먼 낯선 길을 혼자서 걸어 오신 것을 의아스럽게 생각하였고 놀라셨습니다.

《그래 정말 혼자 왔단 말이냐?》하고 할머니는 너무도 기특해서 어린 손자의 손목을 꼭 잡으시고 몇 번이나 되묻군 하셨습니다.

《할머니도 참, 키를 좀 보세요, 내가 어디 어립니까.》하고 원수님은 힘껏 발돋음을 하시면서 큰 키를 해 보였습니다.

자실 이때 원수님은 나이에 비해서 무척 키가 크셨습니다. 키만 크신 것은 아닙

니다. 위험한 국경을 드나드시며 많은 동지들과 몸을 바쳐 독립 운동을 하시는 아버지의 슬하에서 원수님의 생각은 벌써 어른들에게 못지 않게 대담해지셨던 것입니다.

그처럼 담이 센 할아버지도 태산 준령을 넘어 천리 험한 길을 걸어 온 어린 손자를 보고 한편 놀랍기도 하시고 한편 기특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증손이도 제 아비를 닮아 가는게로구나.》하고 할아버지는 어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하여도 할머니는 어린 원수님이 하신 일이 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 그 먼 길을 자동차도 한번 안타고 걸어 왔단 말이지.》하고 할머니는 자꾸만 물었습니다.

그러시면서 할머니는 어린 손자의 다리를 만져 보시면서

《네 다리가 날개 달린 무쇠 다리로구나.》하고 대견한 손자를 둔 것을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래 며칠 쉬여 가려니?》하고 할머니는 또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린 손자가 오래'동안 떠났던 고향을 잠시 다니려 온 줄로만 생각하셨습니다.

어린 원수님은 고향을 떠나신지 7 년만에 돌아 오셨던 것입니다.

《할머니 쉬려고 오지는 않았어요.》

《그럼?》

《공부하려고 왔어요. 조선 사람은 조선 땅에서 조선 공부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제야 할머니는 어린 손자의 뜻을 아시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시였습니다.

사실 원수님의 아버지는 어린 아들의 장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중국에서 소학교를 마치고 중학교에 보낼 것인가…)

무엇보다 왜놈들의 발굽에 짓밟히는 조국의 현실을 자기 눈으로 보면서 조국의 력사와 조국의 글을 배우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님을 고향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보다 앞서 반 년 전에 국경을 몰래 넘어 조국에 돌아 오셔서 칠골에 있는 원수님의 외가댁의 어른들을 찾아 뵈옵고 사랑하는 아들의 공부에 대하여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원수님은 그 뜻을 받들어 사랑하는 부모님과 정든 동생들과 떠나서 칠골 창덕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셨습니다.

## ☆ 수업 시간을 귀중히

조국에 돌아 오신 어린 원수님은 칠골에 있는 창덕 학교에 입학하셨습니다.

이 당시 소학교는 6 년제였습니다. 간악한 왜놈들은 조선 사람은 글 한자라도 더

알면 세상 형편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제놈들의 식민지 통치가 위태해지기 때문에 갖은 방법으로 조선 사람들의 배움의 길을 막아 버렸습니다. 제놈들이 직접 경영하는 《보통 학교》만 6년제로 하고, 조선 사람이 운영하는 사립 학교는 4년제밖에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4학년을 마치고 나오신 원수님은 보습반에 들어 가셨습니다.

사실 칠골은 원수님이 나신 외가 마을이였으나 오래'동안 중국에 가서 살으셨기 때문에 낯익은 동무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원수님은 인차 많은 동무들과 알게 되고 친하게 되였습니다.

원수님이 처음 창덕 학교에 오셨을 때 얼마 동안은 학과 내용이 서로 다르고 또 같은 내용의 학과이라 할지라도 학과 진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문에는 아주 능숙하셨으나 일부 과목에는 좀 익숙하지 못하였습니다.

원수님은 부족한 과목에 전심 전력을 다 기우렸습니다. 몇달 후에는 동무들을 따라 잡았을 뿐만 아니라 멀리 앞서 나가셨습니다.

그리하여 선생님이 물으시는 말에는 제일 먼저 손을 들어 훌륭히 대답을 하군 하였습니다.

원수님은 알고 있는 문제를 잘 발표하셨고 자기의 의사를 잘 나타내셨습니다.

원수님은 암산과 응용 문제에 대해서 뛰여 나게 잘 하셨고 많은 동무들이 원수님의 방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수님은 아는척 하시지 않고 뽐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것은 서슴없이 아는 동무들을 찾아 가 물어 배우셨습니다.

어린 원수님은 수업 시간에는 언제나 똑바로 단정하게 앉아서 공부하셨습니다. 옆을 보거나 뒤를 돌아 보거나 하는 일이 없었고 공부 시간에 잡담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 오셨습니다. 집으로 돌아 오셔서는 방을 깨끗이 쓸고 책상을 잘 정돈하고 학습장을 정리하고 그날 배우신 것을 그날에 깊이 알기에 힘썼고 숙제 하나라도 미루는 법이 없었습니다.

원수님은 교과서와 학습장을 깨끗이 쓰시고 글씨도 깨끗이 잘 쓰시였습니다.

하루는 점심 나절이 훨씬 기우러 원수님이 집으로 돌아 오셨습니다.

마당에서는 밀 보리 마당질이 한창 바빴습니다.

《상기도 마당질을 다 못했구만요.》하고 점심 밥도 자시지 않고 도리깨질을 흥겹게 하셨다합니다.

마당질이 끝나자 손을 씻으시면서

《외할아버지도 외삼촌도 저렇게 뼈가 휘도록 일하시는데 집안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하고 혼자 소리를 하시며 한참 동안 말 없이 그 무슨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원수님은 여니 공부만 잘 하신 것이 아니라 노래와 체육도 잘하셨습니다.

칠골 학교 앞산에 무덤이 총총 있었습니다. 의지가 좀 약한 동무들은 무덤이 많은 메나'골에서 놀기를 꺼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메나'골에는 여우 굴이 있다느니 귀신이 나온다느니 하면서 어른들까지도 꺼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린 원수님은 조금도 겁내지 않고 메나'골에서 군사 놀이를 조직하여 많은 동무들과 즐겁게 놀으셨습니다.

겁이 많은 동무를 잘 타일러 여우굴 부근에 정찰을 보내시고는 그 동무 몰래

뒤를 따라 가 겁을 내지나 않나 하고 보살펴 주셨다고 합니다.

군사 놀이가 즐겁게 끝난 후에는 메나'골에 동무들과 앉아서 왜놈들이 조선 사람을 어떻게 못살게 굴며 피와 땀을 빨아 먹는가를 이야기해 주며 동무들의 가슴에 애국의 불씨를 박아 주시군 하였습니다.

이렇듯 어린 시절 원수님은 자신의 용감성과 애국심과 배운 지식을 굳게 다지시는 한편 동무들을 이끌어 주고 잘 가르쳤습니다.

어느 일요일이였습니다. 대보산 부근에 있는 일가 집에 놀러 가셨습니다. 일가 집 뒤'동산에는 밤이 많이 열렸습니다.

점심 밥을 먹고 나서 밤을 따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나무에 올라가 밤송이를 작은 나무꼬챙이로 한 송이씩 따 내렸습니다.

이것을 보시자 원수님은

《그래가지고 어느 하세월에 많은 밤을 따겠나》하고 긴 장'대를 가지고 높은 밤나무를 두다려 쨌습니다. 그러자 밤송이는 후두둑 쏟아지는듯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좋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아이가 앞으로 나서며

《그래서는 밤나무가 상해서 못 쓴다.》 하고 반대하여 나섰습니다.

이 말을 들은 원수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너는 그래 알면 끝까지 다 알아야지.》 하고 그 동무를 보고 자세히 알려 주었습니다.

《밤나무는 이렇게 적당하게 두들겨 주어야만 썩은 가지는 떨어져 나가고 그 꺾어진 자리에서 또 새 가지가 돋아 난단다. 새 가지가 많이 뻗어야만 밤도 많이 열리지 않겠니!》

동무들은 어린 원수님이 자연의 리치를 잘 아시는 데 놀라 부러운 눈으로 쳐다 보았습니다.

이리하여 원수님과 동무들은 많은 밤송이를 땄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밤송이를 하나씩 발로 밟으며 힘들여 깠습니다.

원수님은 널판자 우에 많은 밤 송이를 놓고 그 우에 또 널판자를 놓고 여럿이 올라 서서 밤송이를 비비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한꺼번에 많은 밤 송이를 까냈습니다.

너무도 하는 일이 신기하여 동무들은 원수님을 쳐다 보면서 물었습니다.

《너 어데서 이런 좋은 법을 배웠니?》

《별로 배운 것도 없지. 그저 눈으로 보고 익혔지.》하고 웃으시며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 ☆《학습 터》

원수님은 일요일에는 만경대 본댁에서 많이 보냈습니다. 집안 일도 거들고 바쁜 농사 일도 힘껏 도와 드렸습니다. 그러시는 한편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하루는 소를 몰고 만경봉으로 올라 간 원수님이 해가 져도 내려 오시지 않았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삼촌 어머니께서 찾아 나갔습니다.

삼촌 어머니는 만경봉 앞 기슭에서 해가 넘어 가고 어두운 데서도 조용히 책을 읽는 원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원수님은 이 조용한 기슭에서 언제나 이렇게 무엇을 생각하시며 책을 읽으시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슭을 《학습 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수님이 좋아하시던 이 《학습 터》는 아름다운 고향의 자연이 더 없이 정답게 가슴에 안겨 옵니다. 조용히 책도 읽기 좋으려니와 바로 이 기슭에서 원수님은 조국의 아름다움과 빼앗긴 내 조국에 대하여 가슴 깊이 생각하셨고 조국에 대한 산 학습을 하셨습니다.

비단 만경봉 우에 있는 《학습 터》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칠골 학교 뒤'동산 우에 있는 《학습 터》도 또한 그렇습니다. 여기에 오르면 푸른 대보산이며 머리를 쳐든 룡악산이 아름답게 보이고 칠골 넓은 뒤'들이 한 눈에 정겹게 안겨 옵니다.

가을이면 황금 벼가 물결치고 《학습 터》 동산에는 맑은 가을의 정취를 풍기는 청초한 들국화가 피고 피여 바람에 한들 거렸습니다.

그러나 빼앗긴 내 고향이요, 내 조국인지라 기름진 넓은 들에 오곡이 차고 넘칠수록 꽃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조국을 생각하시는 원수님의 가슴 속에서는 조국 광복의 크신 뜻이 불 같이 일어나 타번졌습니다.

(다음 호 계속)

# 당 중앙 위원회의 가르침을 가슴마다 새기고

**—평북 운전군 령미 중학교 단
제 10 분단에서—**

**조선 소년단 창립 15 주년을 맞이하여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보내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를 받은 날 동무들은 모두 기쁨과 감격을 금치 못하였다.**

분단 위원회에서는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 내용을 학습할 데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조직되였다.

분단 동무들은 모두가 자기의 《붉은 마음 수첩》에 편지를 또박또박 적어 넣었다.

분단 독보 책임자인 리 정옥동무는 분단 위원회에서 맡은 대로 매일 아침 동무들에게 편지를 읽어 준 후 분단 동무들이 하여야 할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군 한다. 그리고 편지를 큰 종이에 붓으로 써서 복도에 부치였다.

또한 분단 벽보 편집 위원회는 편지를 받은 동무들의 기쁨과 감격, 결의 등을 다진 벽보 《붉은 꽃봉오리》도 발간하고 있다.

분단에서는 날마다 방과 후이면 편지에서 가르친 내용을 조목 별로 하나하나씩 분단 사업과 자기 생활에 비추어 보면서 토론을 가진다.

집에 돌아 오면 반에서도 가끔 반장이 편지를 읽어 주기도 하고 조목 별로 자기들의 생활에 비추어 보면서 토론한 후에야 그날 배운 문제를 복습하군 한다.

하루는 분단에서 《화가》라고 불리우는 김 순실, 김 상운, 리 순애 동무들이 분단 위원회에 찾아 왔다.

그는 당 중앙 위원회 편지 내용과 전국 교육 일'군 열성자 대회에서 하신 김 일성 원수님의 말씀을 분단 동무들이 더 잘 알게 하기 위해 그림을 그려 부치는 것이 어떤 가고 제의 하였다.

분단 위원회에서는 순실 동무의 제의를 지지하여 주었다. 이리하여 며칠 후에는 전국 교육 일'군 열성자 대회에서 하신 김 일성 원수님의 말씀과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 내용을 그린 20장의 그림이 교실에 나붙게 되였다.

또한 분단에서는 동무들의 편지 학습을 돕기 위해 군 당 위원장 선생님을 모시고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군당 위원장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는 동무들의 얼굴 마다에는 당의 편지를 받들고 더욱 공부를 잘하며 혁명 전통 학습도 더 잘하여 4차 당 대회 전으로 어김없이 모범 분단의 영예를 쟁취함으로써 당과 원수님의 사랑과 기대에 보답할 결의가 어리여 있었다.

그후 분단에서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를 높이 받들고 학습과 소년단 생활을 더 잘 하자!》라는 제목으로 분단 총회가 열리였다. 모임에서 최 명자, 서 춘영, 량 년히등 많은 동무들은 편지 내용을 하나하나 깊이 학습하고 연구하여 자기의 살과 뼈로 만들 것을 말하면서 새로운 결의들을 다지였다.

총회나 모임 때마다 말하지 않던 김 순실 동무는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를 학습하고 연구하면서 나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소년단원들은 동무를 사랑하고 집단을 사랑하여야 한다.

어렸을 때부터 서로 돕고 이끌어 화목하게 지내며 동무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집단의 유익한 일이라면 서슴 없이 나서는 품성을 길러야 장차 훌륭한 공산주의자로 될 수 있다.〉라는 구절을 학습할 때 나는 학습에서 뒤떨어진 동무를 보고도 아랑곳 하잖고 핑계를 대며 집단에서 종종 빠져 행동하던 일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이번에 류 춘실 동무를 꼭 학기 말에는 우등의 성적을 쟁취하겠금 도와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 생활을 항상 편지 정신에 비추어 보면서 언제나 그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다.》라고 토론하였을 때 분단 동무들은 기뻐서 모두 박수를 쳤다.

2반 반장 김 혜순 동무는 반 동무들이 학습에서는 우수하지만 학교와 나라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정신이 적다고 하면서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를 학습하고 연구하면서 나라와 학교 재산을 애호하는 데 모범이 되겠다고 하였다.

분단 총회가 있은 다음 날부터 동무들 속에서는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나타났다.

김 순실 동무는 분단 총회에서 결의 한 대로 매일 같이 류 춘실 동무를 도와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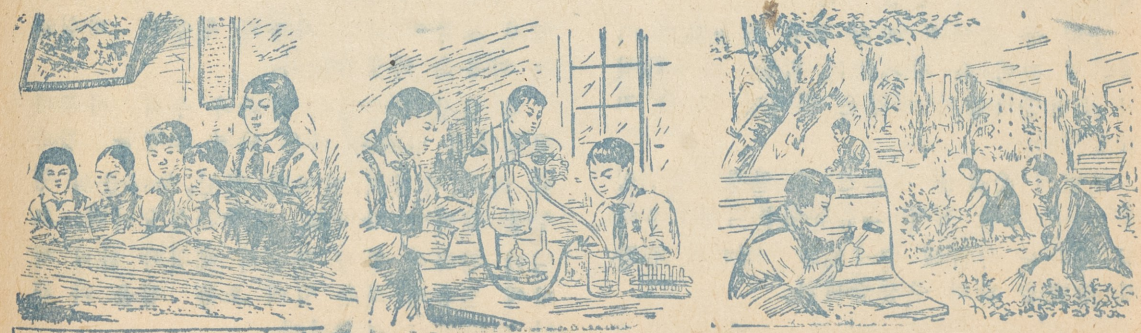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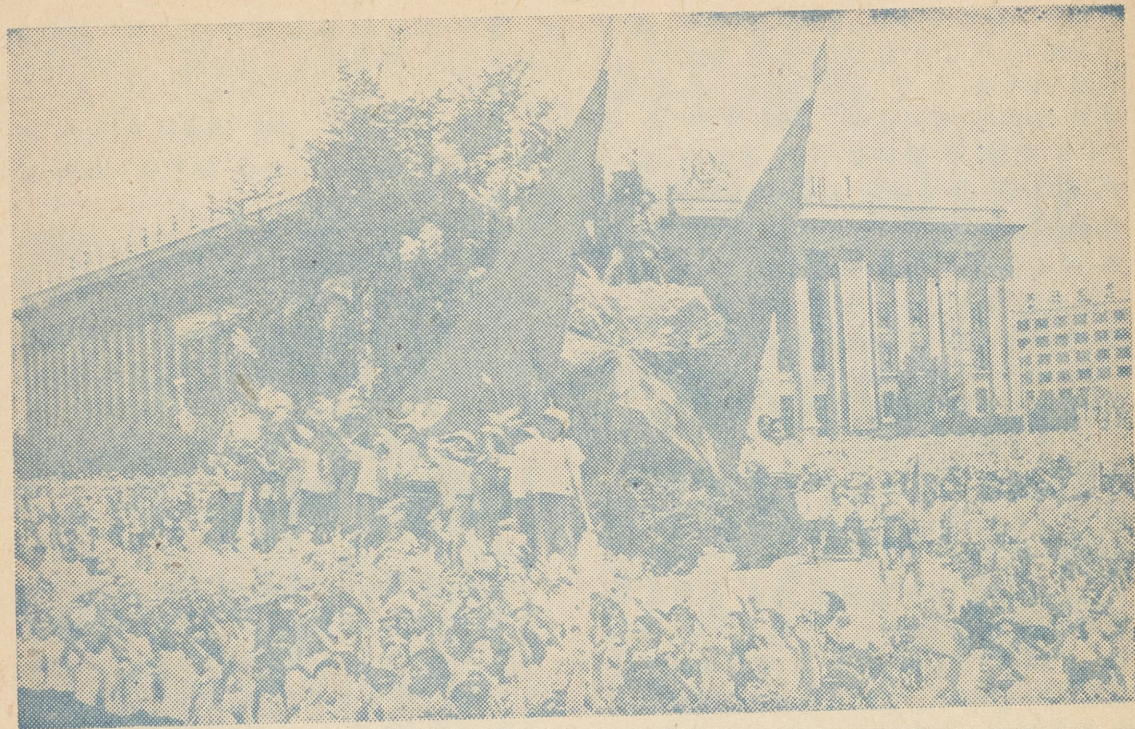
순실동무는 춘실동무 와 함께 늦게까지 실험실과 실습 공장에서 배운 문제를 공부하고서야 집으로 돌아 갔다.

이리하여 학기 말 시험에서는 춘실 동무가 제일 어려워하던 대수 과목에서 5점을 받게 되였다.

순실 동무처럼 분단 동무들은 학습에 뒤떨어진 동무들을 도와 학기말 시험에는 분단이 모두 우등 최우등이 되였다.

지난 날 더러 학교와 나라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할 줄 모르던 2반 동무들 속에서도 편지 정신은 꽃 피여 갔다. 그들은 일요일에 학교에 나와 분단의 책상과 걸상을 고친 후 창고 안에 있던 책상과 걸상 22 개를 고쳐 놓았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정거장 앞 공원을 청소하며 꽃 밭도 가꾸며 공원의 의자들을 물 걸레로 닦기도 했다.

분단 위원회는 편지를 학습하고 연구해 나가는 과정에 동무들 속에서 꽃 피여나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모임과 속보를 통해 소개하며 그 모범을 본받게 하고 있다.

이렇듯 이곳 소년단원들은 당 중앙 위원회의 가르침을 가슴 마다 새기고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해 배우며 준비해 나가고 있다.

# 조국의 앞날은 동무들의 것입니다

백학립

나는 이번에 소년단 창립 열다섯 돐 명절을 여러 소년단원 동무들과 함께 마음껏 즐겼습니다. 김 일성 광장, 모란봉 극장, 모란봉 경기장 그 어디서나 우리는 김 일성 원수님과 함께 명절을 즐겼습니다. 6월 6일 김 일성 광장은 온 나라 소년단원 동무들의 대표들과 모범 소년단원들로 꽉 들어 찼습니다.

당의 품 속에서 15년 동안 행복하고 씩씩하게 자라 온 자기들의 힘을 자랑하면서 소년단원들의 대렬은 주석단 앞을 지났습니다.

만면에 웃음을 지으신 김 일성 원수님은 그냥 손을 저어 소년단원들에게 오늘의 행복을 축하해 주시였고 래일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 손'길을 따라 160만 소년단원들의 앞날을 바라 보는 나는 끝없는 자랑과 감격으로 눈'시울이 뜨거워 났습니다.

스믈 다섯 해 전 내가 아동단원 때의 일들이 그림처럼 눈 앞에 떠 올랐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김 일성 원수님의 품 속에서 잔뼈가 굵어졌습니다.

눈보라 사나운 먼 행군의 길에서도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항상 그이의 품 속에서 조국에 대한 자랑과 원쑤를 미워하는 마음을 키웠습니다.

김 일성 원수님은 언제나 우리 아동단원들에게 일제와 싸워 이겨 조국을 찾아야 하며,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의 원쑤를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항상 꾸준히 배워야 하며 혁명에 도움이 되는 일에 모든 힘을 다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지금도 황 정해라는 아동단원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노래도 잘 불렀지만 춤도 참 잘 췄습니다. 한번은 중요한 통신 련락을 가다가 그만 원쑤놈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원쑤놈들은 그에게서 비밀을 알아 내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썼지만 오히려 제놈들이 속아 넘어 가고 말았습니다.

김 일성 원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한 정해 동무를 그 어떤 원쑤놈들이 굽힐 수 있었겠습니까.

정해 동무는 때를 노리다가 용감 무쌍하게도 놈들의 무기까지 빼앗아 가지고 빠져 나왔습니다. 정해 동무는 아동단 생활에 누구보다 모범이였습니다.

조직에서 맡은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해 내고야 말았습니다.

이것이 김 일성 원수님의 말씀을 훌륭히 실천하는 길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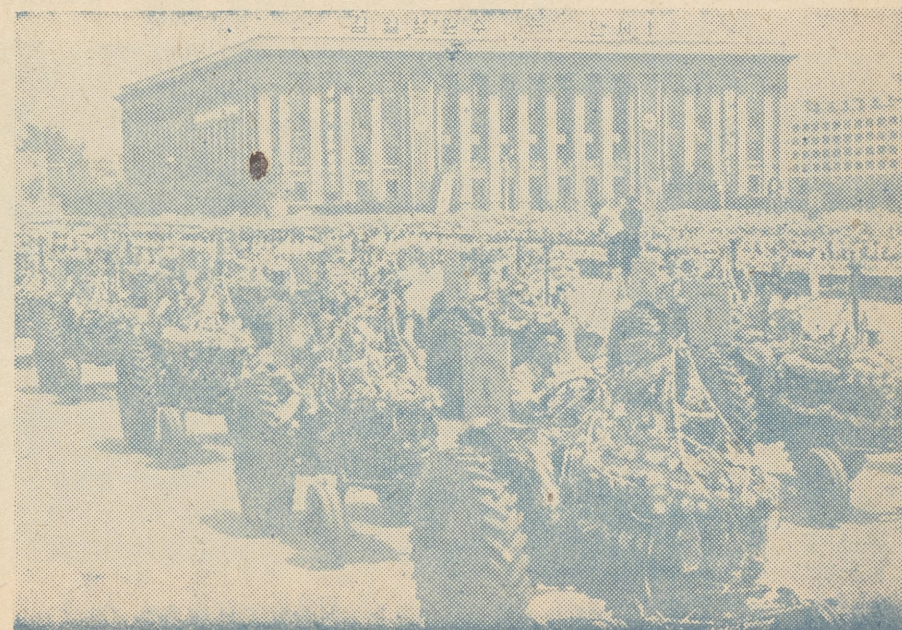
그 후 황 정해 동무는 유격대에 들어 가 김 일성 원수님의 참된 전사로서 여러 번에 걸치는 전투에서 원수님을 호위하는 영광스러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그러다가 경기관 총수가 되여 용감히 싸우다가 그만 불행히도 전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남긴 고귀한 뜻은 많은 혁명 투사들의 붉은 피와 함께 소년단원 동무들의 붉은 넥타이에 물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1만 1천 명이 넘는 평양시 소년단원들의 집단 체조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를 구경하면서 다음과 같은 김 일성 원수님의 말씀이 다시금 머리에 생생이 떠 올랐습니다.

…우리 조선은 문'자 그대로 삼천리 금수 강산이다. 산도 좋고 물도 맑다.

어느 곳 어디서나 끓인 물이 필요되지 않는다. 비옥한 토지는 기름진 오곡을 풍성하게 거둘 수 있게 하며 동서 해안의 무진장한 가지가지의 수산물과 가는 곳마다에 매장된 금, 은, 동, 철, 석탄 등 모든 귀중한 자연 부원들은 우리 인민들을 모두 잘 살 수 있게 하고도 오히려 남음이 있다.

그러나 우리 인민들은 그것을 일제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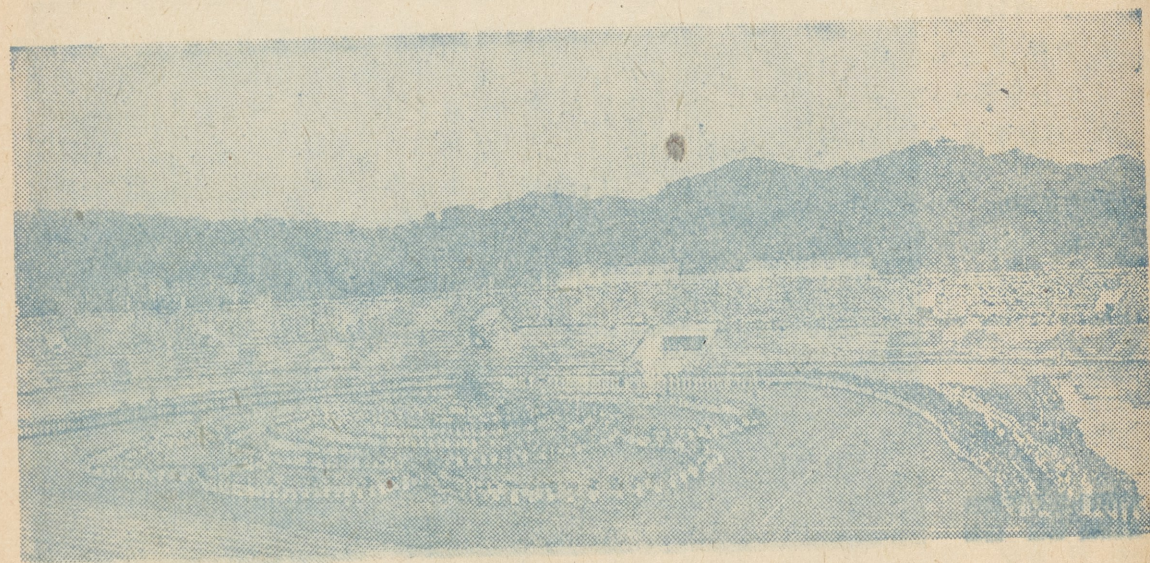
농촌에 뜨락또르를 보내는 행진 대렬

에게 죄다 빼앗겼다. 우리는 모든 곤난을 극복하고 일제와 싸워서 조국을 반드시 해방시킴으로써 우리 민족을 망국노의 처지에서 벗어 나게 해야 한다.

김 일성 원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는 우리는 헐벗은 것도 배 고픈 것도 다 잊고 있었습니다. 다만 어서 빨리 일제놈들과 지주놈들을 때려 부시고 해방된 조국에서 마음껏 배우며 일할 생각이 앞섰을 뿐입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그 때의 우리 아동단원들의 이 희망이 동무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김 일성 원수 항일 빨찌산의 빛나는 혁명 전통의 깊고 깊은 뿌리에서 이처럼 아름답게 피여나는 동무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항일 빨찌산 아저씨들은 젊음도, 생명도 아끼지 않고 동무들에게 오늘의 이 행복을 마련해 주기 위해 피 흘려 싸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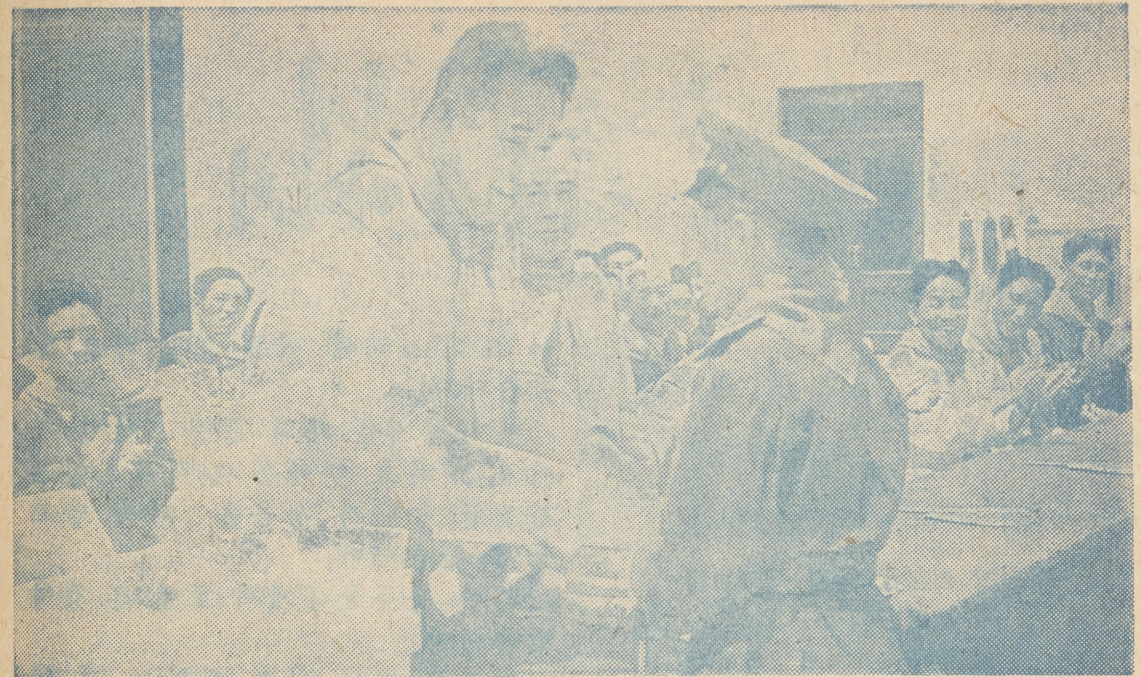
조국의 휘황한 앞날은 동무들의 것입니다. 동무들에게는 공산주의 앞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소년단원 동무들이 할 일은 참으로 많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번 소년단 창립 15 주년을 맞이 하여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보내주신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에 자세히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년단원들은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와 김 일성 원수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모래 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반디'불 밑에서까지 공부한 항일 빨찌산 아저씨들과 아동단원들의 그 마음으로 공부에 힘써 누구나 우등, 최우등생이 돼야 합니다.

아동단원들처럼 나라와 인민을 사랑하고 집단을 사랑하며 원쑤를 증오할 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년단 조직 생활에 모두가 열심히 참가하여 조직이 주는 위임이라면 어김 없이 해내는 어린 혁명가로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다 김 일성 원수님의 참된 아들딸로 조국 앞날을 걸머지고 나아갈 공산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힘차게 준비해 나갑시다.

집단 체조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의 한 장면



# 《조선 소년의 영예상》을 받은 동무들

편집부는 조선 소년단 창립 15 주년을 맞으며 《조선 소년의 영예상》을 받은 44 명의 동무들을 계속 소개하려 한다. 이번 호에는 그중 13명의 동무들을 먼저 소개한다.

《조선 소년의 영예상》 수상자들)

## 분단의 어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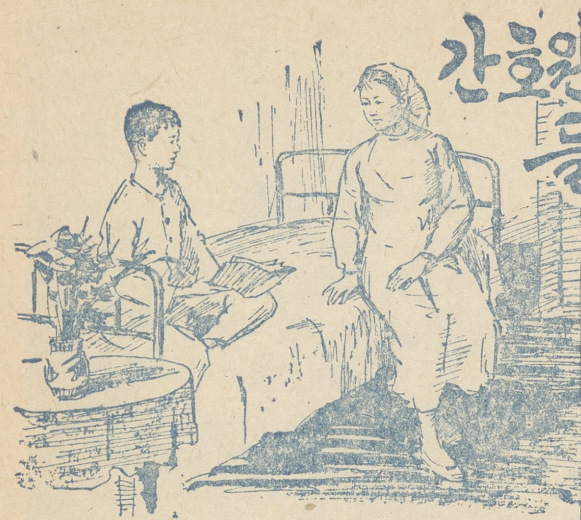
—평북 팡성 유자녀 학원 8 분단 위원장 문 정숙 동무—

문 정숙 동무는 자기 분단 동무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도와 주며 동무들의 아픔과 기쁨을 자기의 아픔과 기쁨으로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품성을 가진 참된 분단 위원장이다.

정숙 동무는 밤마다 생활실을 돌아 다니면서 동무들의 잠'자리를 돌보아 주면서 벼개도 바로 베워 주고 차 제낀 이불도 조심히 덮어 준다. 또한 더러워지도록 빨지 못한 동무들의 수건과 양말도 남 모르게 빨아다 놓아 주기도 한다.

어느 날은 밤중에 한 동무가 갑자기 앓기 시작하는 것이였다. 정숙이는 그를 업고 십리나 되는 길을 달려 병원으로 갔던 일도 있다.

정숙이는 마치 어머니처럼 동무들의 생일도 기억했다가 마음껏 축하해 주기도 하고 고집이 세고 말썽을 부리는 영순이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어 좋은 동무로 고쳐 주기도 했다.

분단 위원장인 정숙 동무의 이런 아름다운 마음은 곧 분단 동무 전체의 마음으로 되였다. 분단은 서로 어려운 일에 앞장에 서며 자기의 모범으로 뒤떨어진 동무들을 이끌어 올리는 한뜻으로 굳게 단결된 붉은 집단으로 되였다. 문 정숙 동무의 참된 모범으로 꽃 피여난 이 분단은 지난 3월 모범 분단의 영예를 쟁취하였다.

# 간호원 누나에게 들려 줄 이야기

—황남 신천군 락원 중학교단 제 1 분단에서—

김 준규　그림 김진항

따뜻한 봄날이였습니다.

멀리 창 밖에서 학교 가는 아이들의 명랑한 노래'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태화는 병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노래'소리에 귀를 기우리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전 태화 동무 편지 왔어요.》 하고 한아름 편지를 안은 간호원 누나가 웃음을 가득 담고 들어 왔습니다.

분단 동무들에게서 보내 온 것이였습니다.

편지를 받아 안은 태화는 그 중에서 제일 두툼한 봉투 한장을 먼저 뜯었습니다.

《태화야, 오늘은 이런 과목을 배웠어. 글씨가 깨끗지 못하지만 읽어 줘. 원 근》

분단의 원 근 동무가 산수, 로어, 문학 등 그날 배운 과목을 베껴 보내 온 것이였습니다.

태화는 여러가지 재미 있는 소식을 담은 동무들의 편지를 다 읽고 원 근이가 보내 준 편지를 다시 읽으며 씨무룩히 웃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에 혼자 좋아 해요.》 하고 옆에 섰던 간호원 누나가 다가 서자 태화는 편지를 읽다 말고 분단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누나, 나에게 매일 두툼한 편지를 보내는 이 동무에 대해서 얘기할가요.》 태화는 모범 분단이 되자고 힘쓰는 분단 동무들을 그려보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 × ×

지난해 여름 어느 날이였습니다.

오래 전부터 마음 먹어 오던 5분단과의 축구 시합이 벌어졌습니다.

축구 선수로 뽑힌 원 근이는 대틈 좋아 하며 자기 고무 공을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찝니까. 얼마 되지 않아 그만 꼴을 두 개나 훌렁 먹었으니 말이지요.

그러다가 어찌하여 5 분단에 꼴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난 가겠어.》 하고 원 근이가 제 뽈을 들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동무들은 타일렀지만 듣는 척도 안하고 달아나 뺐습니다. 그들의 짝패들인 방 선화, 차 영서도 어슬렁 어슬렁 달아 났습니다.

《지게 되니깐 가는구나. 시시하다야》 하고 5 분단 선수들이 소리쳤습니다.

이럴 때 분단 위원장인 태화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딱

## 《조선 소년의 영예상》 수상자들

### 국가 재산을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자강도 강계시 강계 중학교 단 위원 김 경섭 동무—**

경섭 동무는 분단에서 제일 어리고 작은 꼬마 동무로 불리어지고 있으나 나라를 사랑하는 그의 마음은 누구에게 비할 바 없이 열렬한 동무이다.

그러기에 그는 길'가의 나무 한대 학교의 유리 한장도 무척 아끼고 사랑한다.

한 번은 비 오는 날 밤 비'바람 소리에 잠을 깬 경섭 동무는 학교의 토끼가 걱정이 되여 우뢰 울고 번개치는 캄캄한 밤이였지만 비'바람을 뚫고 학교 토끼사로 달려 가 지붕을 덮어 주고 비'바람을 막아 주어 토끼를 위험 속에서 구원하였다. 그리고 새끼 토끼들은 품에 안고 집으로 와서 이불 속에 넣고 돌보아 주었다.

한번은 바람이 몹시 부는 날 새벽 2시에 학교로 달려 나와 열려진 창문들을 깨지지 않도록 잘 닫아 준 일도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세찬 바람에 갓 심어 놓은 나무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소낙비가 멎을 때까지 그 나무를 버티고 섰다가 작대기를 얻어다 잘 세워 준 일도 있다.

이처럼 애국심에 불타는 경섭 동무는 인민반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6년 간을 계속 최우등으로 공부하고 있고 례절이 밝고 동무를 사랑하며 로동을 사랑하는 데서도 다른 동무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 《조선 소년의 영예상》 수상자들

### 오직 붉은 집단을 위하여

**—황남 해주시 사미 중학교 7 분단 위원장 김 민자 동무—**

최우등생이며 분단 위원장인 김 민자 동무는 분단 집단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힘을 바치는 동무이다.

학습도 항상 꾸준히 하여 동무들에게 모범을 보여 줌은 물론이고 추운 겨울에는 아침 일찌기 학교에 나와 난로 불을 따뜻이 피워 놓고 동무들을 기다리며 동무들이 청소를 게을리하면 자기가 먼저 있는 힘을 다해 깨끗이 청소하여 동무들이 따라 오도록 하였다.

분단에 마음을 부치지 못하고 제멋 대로 행동하며 자주 결석하며 지각하는 동무들을 친절히 도와 주면서 그들이 지각하지 않고 결석하지 않도록 아침마다 찾아 가서 같이 학교에 나오군 하였다.

학교에 나와서는 공부도 열성껏 도와 주었다. 그리하여 그들을 우등생으로 만들었고 분단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동무들로 고쳐 주었다.

분단 집단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는 모범을 따라 분단에는 날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꽃 피여 갔다. 그리하여 불과 석달 동안에 분단의 《붉은 마음 수첩》에는 1,500 가지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적히게 되였다.

이리하여 지난 3월 17일 민자 동무네 분단은 모범 분단의 영예를 쟁취하였다.

했습니다.

5 분단 동무들을 보기 부끄러웠습니다. 모두들 《우리 분단의 수치야.》 하면서 웅성거렸지요.

생각하면 밸이 났지만 그러나 태화는 동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 근이는 분단을 사랑하지 않고 있어. 그러나 그럴수록 우린 근이를 더 돕고 사랑해야 해.》 하고 말이지요.

그 다음 날이였습니다.

근이는 3 시간이나 늦어 교실에 어정어정 들어 섰습니다.

《왜 늦었니?》 태화가 기쁜 얼굴로 나직히 물었습니다.

《위생 문화 사업을 했는데 뭘 그래.》 근이는 깎은 머리를 척 내보이며 성까지 벌컥 내는 것이였습니다.

《저런 게 다 분단 위원장이라고

우쭐대니 시시해서.》

근이는 태화를 비웃듯 힐끔 쳐다 보고는 제 자리에 가 앉아 늘 하는 버릇 대로 뒤'주머니에서 학습장을 꺼내는 것이였습니다.

뚜껑이 다 떨어지고 꾸겨진 학습장에 여기 저기 되는 대로 갈겨 쓴 것을 펼치면서도 그는 부끄러

워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도와 고쳐 줘야 하겠다는 마음이 앞선 태화는 입술을 깨물며 안타까이 근이를 바라 보았습니다.

태화는 어려서 귀를 몹씨 앓은 후부터 잘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이와 영서, 선화는 그를 《귀먹어리》 라고 놀려 주며 그의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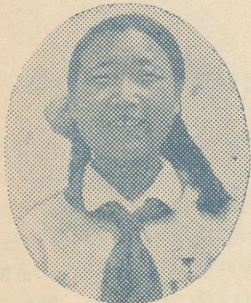
그러나 태화는 분단에서 누구보다 공부를 잘 하고 신망도 높았습니다.

분단과 동무들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건 아끼지 않으니까요.

태화는 근이를 고쳐 주려고 무척 애 썼지만 제꺽하면 학교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공부야 말할 나위 없지요. 《모범 분단》 칭호 쟁취 운동에 참가하자고 보니 근이와 영서, 선화 동무들 때문에 야단이였습니다. 분단 지도원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며 분단 위원회에서 의논해 보니 그들은 공작에 취미가 있었습니다.

분단에서는 그들을 곧 공작 크루쇼크에 넣고 신천 철공 생산 협동 조합 지 명준 천리마 작업반

---

《조선 소년의 영예상》 수상자들

## 우등 최우등의 분단으로

**—황해북도 봉산 중학교 12 분단 위원장 민 영자 동무—**

민 영자 동무는 자기가 먼저 최우등으로 학습하면서 전체 분단 동무들을 모두 우등 최우등으로 이끌기 위해 힘썼다.

영자 동무는 어머니가 병으로 계시여 집 일을 돌보느라고 학습에 뒤떨어지는 김 금자 동무와 항상 가까히 지내면서 집일도 도와 주고 공부도 같이 하고 노트 정리도 해주면서 그가 학습에 재미를 부치게 하여 끝내 우등으로 이끌었다.

영자 동무는 무슨 일이건 동무들과 의논하며 힘을 합해 해나가기에 힘 쓴다.

영자 동무는 단이나 분단에서 맡은 과업을 어겨 본 일이 없다.

그는 어려운 일에 항상 자진하여 나선다.

그리하여 지난 학기 동안에만 해도 많은 동무들의 학습을 도와 주었다.

이리하여 전체 분단이 모두 우등 최우등생으로 되였으며 서로 돕고 받드는 화목한 집단으로 되였다.



---

《조선 소년의 영예상》 수상자들

## 동무를 사랑하고 집단을 사랑하는 참다운 동무

**—량강도 보천군 김 일성 고중 8 분단 위원장 리 창학—**

《분단의 학습과 소년단 생활에 뒤떨어진 동무가 있다면 그것은 분단 위원장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창학 동무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 왔다.

때문에 그는 언제나 남보다 먼저 학교에 나왔고 맨 나중에야 집으로 돌아 간다. 그는 분단 동무들을 한 덩어리로 묶어 세우기 위해 힘 썼다.

그리하여 그는 동무들의 좋은 점과 즐겨하는 일을 찾아내여 그것을 살려 주는 한편 그와 반대로 나쁜 점을 버리도록 도와 주었다.

종남이가 공부는 게을리 하지만 시를 읊기 좋아 한다는 것을 안 창학 동무는 그에게 시 읊는 법도 배워 주었고 자기에게 있는 동요, 동시집을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분단을 위해서라면 그는 그 무엇이건 아끼는 것이 없다.

이처럼 동무를 사랑하고 집단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행동에 감동된 동무들은 모두 그의 모범을 따르기에 힘썼다.

그리하여 이제는 지각을 하거나 숙제를 해 오지 않는 동무들이 없어졌고 분단은 화목한 집단으로 되였다.

이리하여 분단은 마침내 모범 분단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아저씨들과 상봉 모임도 가지고 짬짬이 찾아 가서 선반 기술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러자 무얼 만들기 좋아 하는 근이는 뻰질나게 잘 나왔습니다.

그렇게 잦던 결석과 지각은 없어졌습니다. 태화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습니다.

그래 분단 동무들 앞에서 칭찬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근이는 공부에는 힘 쓰지 않았지요.

태화는 그의 학습장부터 제대로 갖추게 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분단에서는 학습장 전람회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곧 벽보에 나붙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다른 분단 동무들도 참가한다는 것을 안 근이는 그제야 《누구의 학습장을 좀 빌려야겠는데.》하고 서두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이것을 눈치 챈 태화는 이날 밤 자기 학습장을 다 싸 가지고 근이네 집으로 찾아 갔습니다.

태화는 서먹서먹해 하는 근이 앞에 《자 같이 공부하자.》하고 학습장을 펼쳐 놓았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근심하던 차이라 근이는 말 없이 태화의 글씨를 따라 열심히 베끼는 것이였습니다.

이렇게 며칠 정리하는 새에 근이는 글씨도 늘고 그 동안 배운 공부도 하게 되였습니다.

전람회 날이 왔습니다. 근이의 학습장이 참 잘 정리되였다고 평가되였습니다. 더군다나 교장 선생님의 칭찬까지 처음 받는 근이는 어쩔 바를 몰라했습니다.

이런 때 태화는 더욱 그를 도와주기에 힘썼습니다.

그후 근이의 생활은 달라지기

## 《조선 소년의 영예상》 수상자들

### 자기 생명의 위험도 무릅쓰고

—평양시 승호 구역 하천 중학교 단 위원 리 호섭 동무—

호섭 동무는 누구보다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를 열심히 학습하며 혁명 투사들처럼 살며 배우며 일하기에 힘 쓴다.

그러기에 그는 학습에서도 모범일 뿐만 아니라 언제나 동무를 사랑하며 동무의 어려운 일이라면 자진하여 도와 준다.

지난 여름 호섭 동무는 학교에서 돌아 오는 길에 여섯살 난 어린 아이와 그를 구원하려 들어 간 자기 동무 김 안석이가 폭탄 구덩이에 빠진 것을 보고 자기 생명의 위험도 무릅쓰고 뛰여 들어 그들을 구원하였다.

뿐만 아니라 호섭 동무는 로동에서도 항상 동무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집에서는 부모님들의 바쁜 일손을 도와 드리며 학교에 가서는 부지런히 책상, 걸상을 손질하며 청소 사업에도 언제나 먼저 참가하군 한다.

그리하여 동무들에게서 신망이 높다.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공부에 힘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를 진심으로 도와 주는 태화를 생각했습니다.

그의 귀가 척척 잘 들린다면 얼마나 좋으랴 싶었습니다. 사실 근이 뿐 아니라 분단 동무들 모두가 태화의 귀를 걱정하게 되였습니다.

이러던 차에 흥남 비료 공장 병원에서 화상 입은 방 하수 동무에게 살을 떼여 주어 그의 생명을 구원해 주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실은 《소년 신문》이 분단에 왔습니다.

근이는 태화의 귀를 고쳐 주자고 제의했습니다.

분단에서는 의논 끝에 평양 의학 대학 병원에 편지를 띄우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후 의대 병원 선생님 두 분이 학교에 찾아 오셨습니다.

이리하여 태화는 병원에 오게

되였던 것입니다.

× ×

태화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간호원 누나는 《태화는 참 행복해요.》라고 하며 행복한 웃음을 가득 담는 것이였습니다.

이날 태화는 귀 수술이 잘 되였다는 편지를 써서 근이와 분단 동무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모범 분단 기'발을 수여 받는 분단 대렬의 맨 앞에는 태화와 근이의 자랑스러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 《조선 소년의 영예상》 수상자들

### 신망 높은 벽보 주필

—량강도 신파 초등 학원 단 벽보 주필 최 기혁 동무—

최 기혁 동무는 단 벽보 주필로서 항상 조직의 위임에 충실한 동무이다.

그는 조직이 위임한 벽보 주필의 임무를 매우 영예롭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던지 벽보를 더 잘 만들기에 힘썼다.

그리하여 제대로 발간되지 못하던 단 벽보를 매달 1~2회씩 발간하는 한편 속보도 발행하였다.

기혁 동무는 동무들에게서 선거 받은 후 오늘까지 500 여 건의 벽보와 속보를 발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단이나 분단에서 맡은 일은 어김 없이 해낸다.

그는 또한 학원의 책상, 걸상을 아끼고 사랑하며 못 쓰게 된 것은 남 모르게 고쳐 놓군 한다.

이리하여 기혁 동무는 동무들에게서 사랑 받는 벽보 주필로 되였다.

작문

# 김 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

나는 6월 6일 조선 소년단 창립 열 다섯 돐을 기념하는 전국 소년단 련합 단체 대회에 참가한 기쁨과 감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영광스럽게도 김 일성 원수님을 비롯한 당과 정부의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주석단에 올랐습니다.

수천 수만의 동무들이 꽃다발을 저으며 《조선 로동당 만세!》, 《김 일성 원수 만세!》를 목청껏 웨칠 때 나는 항상 우리들을 행복하게 보살펴 주시는 원수님에 대한 감사의 정으로 눈'시울이 뜨거워 졌습니다.

그런데 원수님은 동무들의 시위 행진에 매우 기뻐하시며 손저어 화답하시다 말고 문득 나의 손목을 꼭 잡아 쥐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가슴은 기쁨과 감격으로 해서 벅차 올랐습니다.

원수님은 공부 잘하고 몸도 튼튼히 하여 나라의 훌륭한 일'군이 되라고 하시며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 왔는가고 물으셨습니다.

나는 온 몸이 뜨거워지며 가슴이 울렁거려 미처 뭐라고 대답했으면 좋을지 몰랐습니다.

나는 마음 속으로 몇번이고 원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15 여 성상의 긴 세월을 두고 눈보라 휘몰아 치는 동북의 밀림과 벌판에서 하늘을 지붕 삼고 일본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쳐부시었고, 오늘은 우리에게 이처럼 행복을 안겨 주신 김 일성 원수님!

어떻게 하면 원수님의 이 은혜에 보답할가! 이런 생각으로 하여 나에게는 련합 단체 대회와 시위가 어느 새에 끝난지도 모르게 지나 갔습니다.

나는 그날 저녁 려관에 돌아 온 뒤에도 그대로 원수님과 함께 있는 것만 같아 도무지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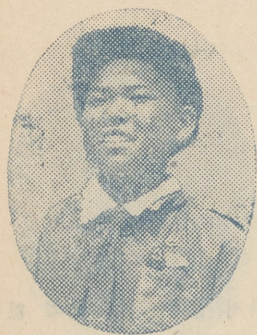
나의 눈 앞에는 내가 대회에 떠나 오던 날 《일제 시대나 미국놈들이 싸다니는 남조선 같으면 가난한 농민의 집 딸인 네가 학교 문 앞에나 가 보았겠니. 그런데 네가 원수님을 뵈으려 평양에까지 간다니 참 좋은 세상이니라.》라고 하시며 감격의 눈물을 지으시던 아버지 어머니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에도 헐벗고 굶주리다 죽어 가는 남반부 동무들의 생각이 나서 가슴이 메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원수님은 우리 개성 어린이들의 학습과 즐거운 휴식을 위해 개성에도 커다란 소년 회관을 지어 주시였습니다.

나는 조선 소년단 창립 15 주년을 맞이하여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보내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를 높이 받들고 항일 유격대 아저씨들과 아동단의 혁명 정신을 본 받아 학습과 소년단 생활에 더 잘 참가하여 원수님의 참된 나 어린 붉은 전사가 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개성시 선죽 중학교 제 15 분단

위원장 리 향원

## 《조선 소년의 영예상》 수상자들

### 책임성 강한 영주 동무

—평남 온천 중학교 27 분단 위원장 곽 영주 동무—

곽 영주 동무는 분단 위원장으로서 항상 학습과 모든 생활에서 자기가 먼저 집단의 모범이 되기 위해 힘쓰며 무슨 일에서나 책임성이 강한 동무이다.

지난 해 여름에 있은 이야기다. 깊이 잠 들었던 영주는 억수로 퍼 붓는 소나기 소리에 잠을 깨였다. 영주는 벌덕 일어 났다.

전날 분단의 토끼 집을 새로 지으면서 토끼들을 림시 토끼집에 넣어 둔 것이 생각 났던 것이다. 영주는 더 생각할 사이 없이 비가 억수로 퍼붙는 밖을 나섰다.

쏜살 같이 학교로 달려 간 그는 100 여 마리의 분단 토끼를 모두 안전한 곳에 옮겨 놓고야 돌아 왔다.

이처럼 곽 영주 동무는 학교의 재산을 사랑하며 분단 위원장으로서 책임성이 강하다.

뿐만 아니라 영주 동무는 분단 위원들과 함께 뒤떨어진 동무들을 꾸준히 도왔다. 그리하여 오늘 분단은 모두 우등 최우등으로 되였다.



### 학교에서도 마을에서도 사랑 받는 동무

—평남 중화군 채송 중학교 3 분단 위원장 김 봉기 동무—

모범 분단 위원장인 김 봉기 동무는 분단에서 혁명 전통 학습을 훌륭히 조직하고 있다.

봉기 동무는 분단 동무들이 누구나 빠짐 없이 김 일성 원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항일 빨찌산 회상기와 아동단원들의 투쟁기들을 읽게하였다. 그리고 때때로 감상 모임도 조직하군 하였다.

그리하여 분단은 서로 돕고 받드는 화목한 집단으로 되였다.

봉기 동무는 분단에서 뿐만 아니라 마을에 돌아 가서도 부모님들에게 회상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리군 하였다. 인민반 회의에 나가서도 이야기하고 어머니들을 따로 찾아 가서도 재미 있게 이야기 해 드리군 하였다.

한번은 마을에서 《인민의 것이라면》이라는 회상기를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읽어 드리고 있었는 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때마침 조합 마당에는 탈곡해 놓은 곡식이 있었다.

봉기 동무는 이날 밤 어머니들과 같이 20 톤에 가까운 조합 곡식을 날라 들였다.

그리하여 봉기 동무는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마을에서도 신망이 높은 동무이다.

# 원수님을 모시고 공연한 기쁨

나는 우리들의 명절 소년단 창립 15 주년을 기념하는 전국 소년단원 종합 예술써클 공연에서 영예롭게도 원수님을 모시고 《혁명 가요 련곡》과 《김 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를 공연하였습니다.

원수님을 모시고 공연한다는 기쁨과 감격으로 하여 나는 어떻게 지휘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수님은 웃으시면서 우리들에게 칭찬의 박수를 보내 주시였습니다. 나는 끝 없이 행복하였습니다.

지난 4월 2일 원수님이 비날론 공장 건설장에 오셨을 때였습니다.

우리들은 처음으로 원수님을 뵈옵고 원수님 앞에서 우리가 련습한 것을 연주하였습니다.

공연을 마치자 원수님은 우리를 부르시였습니다.

두 팔로 우리를 글어 안으시고 머리까지 쓰다듬어 주시면서 자기 나라 악기로서 자기 나라 음악을 그렇게 잘 연주하는 일은 매우 좋은 일이며 공부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몸도 튼튼히 키우라고 하시였습니다.

원수님은 계속하여 행복하면 할수록 남반부의 어린 동무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가야금을 만지시던 원수님은 남조선 어린이들은 가야금이란 무엇인지 모르고 길'가에서 깡통을 차고 헤매다가 죽어 가고 있다고 하시면서 학교 동무들이 누구나가 모두 한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 어머니는 가난한 소작살이에 헐벗고 굶주리던 이야기를 하시면서 원수님의 참된 전사가 되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날 밤은 원수님을 뵈은 기쁨으로 하여 정말 잠들 수 없는 밤이였습니다.

원수님이 다녀 가신 후 우리는 원수님의 말씀 대로 누구나가 모두 한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룰 수 있게 되였습니다.

나는 원수님의 품에서 마음껏 배우며 자라 훌륭한 민족 음악가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사랑을 가야금에 담아 세상에 소리 높이 노래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나는 먼저 항상 아동 단원들의 혁명 투쟁 정신을 본 받아 공부를 잘 하며 소년단 생활에 더욱 열심히 참가 하겠습니다.

함남 함흥시 본궁구역
흥덕 중학교 인민반 4학년
한 금 상

## 《조선 소년의 영예상》 수상자들

### 원수님의 말씀 지켜 《모범 분단》으로

—량강도 혜산시 혜산 중학교 31 분단 위원장 우 죽순 동무—

우 죽순 동무가 인민반 1 학년 때였던 1958년 5월 8일에 김 일성 원수님께서 이 학교를 다녀 가셨다.

그 때 죽순 동무는 원수님이 학교에 오셔서 공부 잘하고 실험 기구를 많이 갖추고 결석생을 없애고 학교를 록음 우거지게 하고 모두 다 한 마음으로 서로 돕고 힘써 공산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되라고 하신 말씀을 또박또박 수첩에 적어 넣었다.

죽순 동무는 하루의 결석 지각도 없이 공부에 힘써 오늘까지 최우등으로 공부하고 있다.

3 학년이 되면서 분단 위원장이 된 죽순 동무는 분단에 《5, 8 기록부》라는 책을 만들기로 의논했다.

여기에는 1958년 5월 8일 김 일성 원수님이 주신 말씀을 적어 넣고 이 가르침을 받들고 생활해 나아가는 동무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적어 넣기로 했다.

아름다운 이야기는 날마다 늘어 갔다. 서로 돕고 이끌며 원수님의 말씀을 훌륭히 실천한 분단 동무들은 우등, 최우등생이 97%로 되였다.

이리하여 올 해 4월 15일 그의 분단은 《모범 분단》의 영예를 지니였다.



## 《조선 소년의 영예상》 수상자들

### 누구나 제 동생 처럼

—함북 경성군 경성 중학교 5 분단 위원장 리 종호 동무—

종호 동무는 분단 위원장으로서 항상 자기가 먼저 소년단원의 의무를 충실히 지키는 참된 소년단원이 되기 위해 힘썼다.

그는 학습에서도 최우등이지만 동무를 도와 주며 례절이 바르고 특히 어린 동생들을 사랑하며 친절히 가르치는 데도 모범이다.

그는 마을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길'가에서 항상 어린 동생들을 잘 돌봐 주며 친절히 가르쳐 준다.

지난 겨울 어느 날이 였다.

학교에서 돌아 오던 길에 마을 앞 언덕 밑에서 유치원애 두 아이가 눈무지에 빠져 우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언덕 길에서 그만 미끄러져 굴러 내려 간 것이였다.

종호는 몇 번씩 넘어지면서 두 아이를 번갈아 업어 올려 모두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는 이날 집에 돌아 오자 마을에 있는 분단 동무들과 함께 삽과 곡괭이를 들고 나가 고개'길의 언 땅을 파 던지어 미끄러 지지 않게 만들었다.

이런 아름다운 일을 하는 종호 동무는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마을 어른들에게서도 례절 바르고 착한 아이라고 칭찬과 사랑을 받고 있다.

—강원도 고성군 삼일포 중학교 단
제 2 분단에서—
최 축 산

6월 25일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 즉시 철거를 위한 투쟁의 날》을 맞으며 이곳 학교 2분단 동무들은 박 정자 동무의 어머니와 한 동석(후퇴시기 고성 빨찌산에서 한 영국이와 같이 투쟁한 분이다.)아저씨를 모시고 애국자들의 붉은 피가 스민 《피바위》에 빙둘러 앉았습니다.

1950년 우리 인민 군대가 일시적으로 후퇴하던 시기 이곳 마을에 기여든 두 발 가진 미국 승냥이놈들은 로동당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80 여 명이나 이 바위에서 학살하였던 것입니다. 수 백 년 이끼 오른 바위는 로동당원들과 인민들의 붉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인민들은 이 바위를 피바위라고 부르게 되였습니다.

새'별 같이 반짝이는 눈'동자들이 어머니의 얼굴을 지켜 보고 있었습니다.

덤덤히 351 고지와 월비산을 바라 보시던 어머니는 무엇을 생각하시였던지 바위에 돋은 푸른 이끼 한줌을 뜯어 쥐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오늘도 11 년 전 이 바위에서 있은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인민 군대가 일시적으로 후퇴하자 고향 마을에 기여든 미국 승냥이놈들은 로동당원들과 인민들의 집에 불을 지르고 소, 돼지, 닭 등을 모조리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놈들은 로동당원들과 인민들을 닥치는 대로 끌어다 말할 수 없는 고문을 하고 나중에는 무참히 총살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정자의 아버지는 이 마을의 세포 위원장이였습니다.

승냥이놈들은 쇠줄로 정자 아버지의 코를 꿰여 가지고 온 마을을 끌고 다니다가 나무에 비끄러 매여 놓고 자구로 코를 깎고 낫으로 귀를 벤 후에 빨갛게 달군 쇠끄챙이로 온 몸을 지지다가 이 바위에서 총살하였습니다.

그러나 쓸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애국자들이 부르는 《조선 로동당 만세!》 《김 일성 장군 만세!》 소리는 쩌렁쩌렁 산을 울렸습니다.…》

동 요

## 지리 숙제하면서

전등'불이 밝고 밝은 방안에서요
나는요 지리 숙제 공부하지요
아름다운 우리 나라 삼천리 금수강산
일하기도 좋지만 살기도 좋지요

공화국 북반부 도시 그릴 때는요
저절로 웃음꽃이 활짝 피더니
분계선을 넘어서 남반부 그릴 때는
저절로 두 주먹이 불끈 쥐여요

승냥이 미제놈들 물러 가거라!
우리의 평화 통일 가로 막는 놈
미친 개 악당놈들 날치지 말아
네놈들의 죽엄길이 가까워 온다

평양시 종로 중학교 단
류 명칠

이야기를 하시다 말고 바위에 패인 자리를 가리키며 《이것은 애국자들을 쏘아댄 미국 승냥이놈들의 기관총탄이 박힌 자욱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원쑤를 잊지 말아야

《조선 소년의 영예상》 수상자들

## 위험 속에 든 동생들을 구원한 동무

—함남 신포시 동호 중학교 인민반 최 근재 동무—

최우등생이며 모범 반장인 근재동무는 올해 열 세살이다.

그는 공부도 잘하고 혁명 전통 학습도 꾸준히 한다.

《만경대》, 《아동단》을 비롯하여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와 아동단원들의 투쟁기를 빠짐 없이 읽었으며 그 모범을 본 받아 그처럼 살며 배우기에 힘썼다.

그러기에 그는 지난 해 가을 어느 날 어린 아이들이 철'길에서 놀다가 기차가 달려 와 위험한 순간에 처한 것을 보고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 들어 한 아이를 안고 철'길 밑으로 뒹굴었다.

그의 용감한 행동에 감동되여 뒤따라 오던 전 기천동무가 또 한 아이를 안고 뒹굴었다.

근재동무는 학습에서는 물론이고 소년단 생활에서도 항상 모범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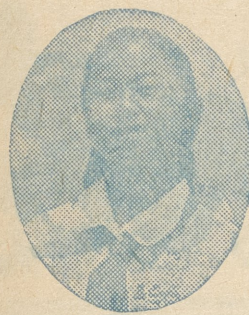
그는 자기가 먼저 소년단원의 의무를 꾸준히 학습하고 그대로 실천하기에 힘쓰면서 동무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그리하여 분단에서 모범 반장으로 이름이 높다.



《조선 소년의 영예상》 수상자들

## 언제나 제가 먼저 모범을 보여

—평양시 남산 고급 중 학교 9 분단 위원장 박 춘식 동무—

최우등생이며 분단 위원장인 춘식 동무는 분단의 참된 《어머니》로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

춘식 동무는 분단을 화목하고 튼튼한 집단으로 꾸리기 위해 먼저 분단 위원들의 역할을 높이기에 힘 썼다.

그는 분단 위원들과 의논하고 열성자들이 먼저 좋은 일하기를 조직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섰다.

그리하여 분단 위원들의 역할은 높아지고 동무들 속에 신망도 커졌다.

춘식 동무는 분단 위원들과 함께 동무들의 학습도 꾸준히 도와 주며 동무들에게 기쁜 일이 생기면 같이 기뻐해 주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같이 걱정하며 해결해 준다. 그러기에 분단 동무들은 무슨 일이든지 그를 찾아 가 의논한다.

그는 소년단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노래 부르고 춤 출 줄도 알며 한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룰 줄 알아야 한다고 하신 김 일성 원수님의 가르침을 명심하고 학습에서 뿐만아니라 써클에서도 모범을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춘식 동무네 분단은 학습에서 모두 우등, 최우등일 뿐만 아니라 연예 써클에서도 다른 분단의 모범이 되고 있다.

합니다.》라고 손에 든 이끼를 으스러지게 꽉 쥐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떨리였으나 힘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가 끝나자 장 봉훈동무가 동무들 앞에 뛰여 나갔습니다.

그는 복쑤의 불'길이 타오르는 자기의 심장으로 시를 읊기 시작 하였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금강산아!
어찌하여 네 아름다운 품에
피바위란 이름이 생겼는가
　아—어린 심장들이 증오로 불탄다

대답하라! 승냥이 미제야
네놈의 더럭손이 가는 곳마다
이런 피바위 얼마나 만들었느냐
인간 백정-승냥이 미제를 타도하자!

시 랑송이 끝나자《동무들!》하고 박 정자 동무가 자리에서 룅기듯 불쑥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로동당원들을 학살한 미국 승냥이놈들이 아직도 남쪽 땅에서 주인 노릇을 하며 인민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승냥이놈들이 제아무리 총칼로 발악하지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 인민들의 투쟁 앞에 산산히 부서지고야 말 것입니다.》

정자의 말은 떨리였고 두 주먹은 돌'뎅이처럼 굳게 쥐여 있었습니다.

정자의 뒤를 이어 신 성용이가 이야기 하였습니다. 《…바로 이 바위에서 정자의 아버지를 비롯한 마을의 애국자들을 학살한 미국 승냥이 놈들이 피 묻은 그 손으로 남조선 인민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아동단원들 처럼 원쑤를 미워하는 마음을 키우며 혁명적 경각성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고향 마을을 지키기 위해 용감히 싸운 소년 빨찌산 한 영국 동무처럼 고향 땅을 지킵시다.》

한 동식 아저씨도 한 영국이가 고향 땅을 지키기 위해 원쑤놈들에게 학살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굴하지 않고 용감히 싸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날 박 정자 동무의 어머니와 한 동식 아저씨의 이야기는 원쑤 미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이 활활 타오르는 어린 심장들에 더 세찬 불'길을 일으켜 놓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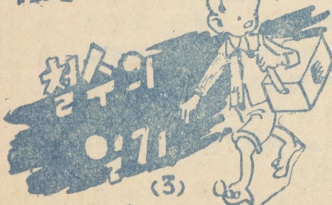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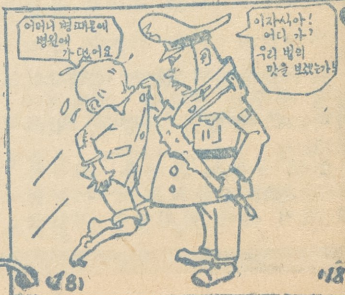
동무들은 한결 같이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를 높이 받들고 학습과 소년단 생활을 더 잘 하며 우리 당 제 4차 당 대회 전으로 모범 분단의 영예를 쟁취 할 굳은 결의를 다지였습니다.

# 가장 귀중한 것

그림 양 재혁

강 효순

(전호에서 계속)

### 3.

《지금 곧 정신이 들것입니다》

우식이는 자기의 귀'전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에 소스라쳐 깨여났다. 우식이는 눈을 번쩍 뜨며 사위를 둘러 보았다. 그 순간 우식이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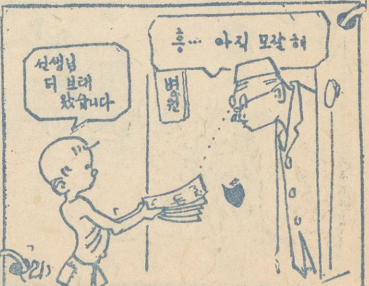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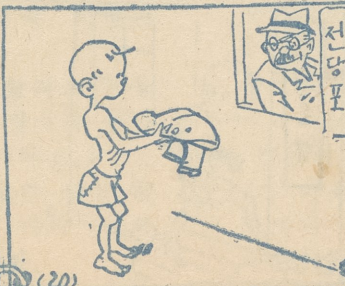
우식이는 뜻 밖에도 흰 보를 편 침대 우에 누어 있지 않는가. 그의 곁에는 위생복을 입은 의사인듯 한 사람이 서고 있었고 그 곁에는 농민 한분이 서고 있었다. 그들은 우식이가 눈을 뜨자 하던 말을 뚝 끄치는 것이였다. 우식이는 통 영문을 알 수 없었다.

위생복 입은 사나이는 자기 말이 맞지 않았느냐는 듯이 곁에 선 농민을 쳐다보며 싱긋 웃더니 밖으로 나가 버렸다.

《정신이 들었니?》

농민 차림을 한 사나이가 우식이 곁으로 달려 오며 반가운 웃음을 지었다.

우식이는 다시 눈을 감으며 돌아 누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저리고 쑤시는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때에야 우식이는 얼마 전에 있은 일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는 이글이글 피여 오르는 아궁 속으로 자기의 발을 쓰러 넣던 것은 머리에 생생히 떠올랐으나 그 후의 생각은 극히 희미했다. 땅딸보와 꺽다리놈이 서로 주고 받던 이야기가 가끔 어렴풋이 들렸으

나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다. 그 후에 우식이는 누구의 등에 업혔던 것 같은 생각이 희미하게 떠 올랐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무 것도 기억에 남아 있지 않았다.

《네놈들이 나를 다시 살려 놓구 내게서 비밀을 알아 보자는 셈이지?
홍! 어림도 없다》

우식이는 입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때에 사나이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자 이걸 좀 먹어 보아라 잉?》

농민 차림을 한 그 사나이의 목소리였다.

(이 사람은 대체 무엇하는 사람일가 땅딸보놈과 꺽다리놈은 어디로 가고 이 사람이 내결에 있을가)

우식이는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더구나 그의 태도가 지나칠만큼 친절한 데는 더욱 이상스러웠다.

《자! 한쪽 들어 보라구.》

그 사나이는 사과쪽을 우식이의 손에 들려 주려는 것이였다. 우식이는 손을 뿌리쳤다. 정체 모를 이 사나이에게서 무엇을 받아 먹고 싶지 않았다.

《뭘 좀 먹어야겠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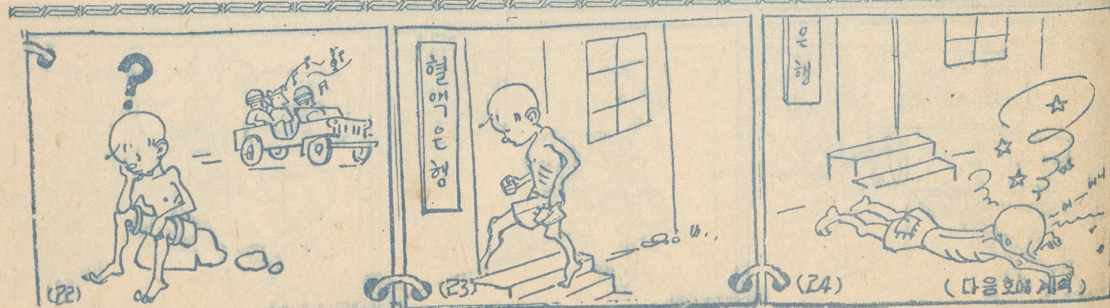
그 사나이는 무척 애처러워하는 어조였다.

우식이는 다시 눈을 떠 그 사나이를 쳐다 보았다.

《네가 그렇게 살아나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구나, 참 세상에는 별 일도 다 있지.》

그는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당신은 누구야요, 그리고 어째서 여기 계서요.》

우식이가 물었다.

《어 어 나는 저 아래 새동네에 사는 농민이지. 산으로 나무하려 갔다 돌아 오는데 길 옆 언덕 아래에 사람이 눈 속에 묻혀 있더구나 급히 뛰여 내려가 보았더니 한 소년이 죽어 넘어져 있지 않겠니. 그래 가슴에 손을 대 보았더니 아직 따스할 뿐만 아니라 가늘게나마 호흡을 하구 있지 않겠니. 나는 처음에는 추위에 못 이기여 쓰러진 것으로 알았지, 그래서 너를 눈 속에서 꺼내 보지 않았겠니, 그랬더니 웬걸! 바지는 모두 불에 타고 너분 다리까지 심한 화상을 입지 않았겠니, 그렇게 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우선 사람을 살려 놓구 보아야겠다구 생각 되더구나. 그래서 곧바루 병원으로 너를 업구 왔다. 하여간 살아나서 무척 반갑다.》

그 사나이는 화상을 입었더라구 할때에는 얼굴을 찌프리며 마치 자기가 아픈 것처럼 표정을 써가면서 이야기 했다.

우식이는 다시 눈을 감았다.

(놈들이 나를 죽은 것으로 알고 언덕 아래로 굴린 것을 이 사나이가 구원해 주었을가?)

우식이는 이렇게도 생각되였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잠'간이고 (그럴 수 없어) 하는 생각이 강하게 솟구쳤다. 더구나 농민의 차림을 하고 있으며 농민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말은 하고 있지만은 말하는 솜씨가 도무지 농민답지 않았다. 더구나 보초놈들이 모르게 자기를 병원으로 업고 왔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우식이는 이 사나이의 정체를 똑똑히 알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우식이는 다시 눈을 떴다.

《제 치료비는 어떻게 물기로 하고
입원을 시켰나요.》 하고 우식이가 물었다.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 글세

돈이 귀하냐 사람이 귀하냐? 너의 살림이 어렵다면 내라두 치료 값을 물어 줄 테니까, 어서 빨리 낫기나 해라 치료비를 적게 들이느라구 이렇게 내가 직접 간호해 주기로 했단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너는 어데서 살구 네 이름은 뭐라구 부르지? 빨리 너의 집에 알려야겠는데.》

그 사나이는 자못 걱정스러워 하는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우식이는 그가 묻는 말에 그대로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저 입을 다물고 있을 수도 없었다.

〈범에게 물려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대로 경각성을 높이는 한편 그를 잘 알아 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공연히 사람을 의심부터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우식이는 슬적 이렇게 말했다.

《집에 알릴 필요는 없어요. 알려도 아무도 올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병석에 누운 어머니의 걱정만 더 많아 질거야요.》

이말을 들은 그 사나이는 볼만 살살 긁으며 무엇을 잠간 생각하더니 다시 사과 그릇으로 시선이 가는 것이였다.

《자 어서 사과나 들어라.》

그 사나이는 사과 쪽을 들어 다시 권하는 것이였다.

이때에 우식이는 그 사나이의 손을 바라보며 깜짝 놀랐다.

(저 손은 농민의 손이 아니다)

우식이는 대번에 이렇게 생각했다. 그의 눈 앞에는 진짜 농민인 아버지의 손이 나타났다. 크고도 거칠며 굵게 매듭진 아버지의 손과 이 사나이의 손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다. 산으로 나무를 하러 다니는 농민이라는데 어떻게 그렇게 손이 고울 수 있겠는가. 손이 말쑥하고 뾰족한 것이 마치 붓 끝과도 비슷했다. 더구나 새끼 손가락의 손톱을 매 발톱처럼 길다랗게 기른 것을 보고 우식이는 정신이 펄적 드는 것 같았다.

우식이는 다시 눈을 감고 말았다.

《이놈은 분명히 놈들의 앞잡이로구나
특무놈임에 틀림 없다!》

우식이는 모든 수수께끼가 대번에 풀린 것 같았다. 그는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자 어서 들라구.》

그자의 말이였다.

우식이는 눈도 뜨고 싶지 않았다. 놈들

에게 개질을 하고 있는 그런 자의 얼굴조차 바라보고 싶지 않았다. 우식이는 두 손으로 이불을 잡아 당겨 얼굴을 묻고 말았다.

시간이 퍼그나 흘렀다. 우식이의 머리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지나갔다.

우식이의 눈 앞에는 자기에게 과업을 주면서 조심히 다녀 오라고 간곡히 부탁하던 김 선생의 모습이 떠 올랐다. 김 선생의 모습은 어느 듯 근심 어린 얼굴로 변했다. 그는 마을 뒤에 있는 북 바위 앞에서 이마에 손을 얹고 길천령 쪽을 바라 보는 것이였다. 어느듯 동무들도 김 선생 곁에 서고 애타게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떠 올랐다. 우식이는 가늘게 한숨을 지었다. 자기의 신세가 이지경이 된 것도 모르고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김 선생과 동무들을 생각하니 목 안이 막타는 것 같았다. 더구나 맡은 임무도 수행하지 못하고 이지경이 되였다고 생각하니 더욱 안타가왔다.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귀중한 문건은 불에 탔지만 나는 그이를 찾아 가서 문건을 전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라도 해야 한다. 그렇다! 나는 이밤으로 이 무서운 소굴을 벗어나야 한다!)

우식이는 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런데 이곳을 벗어날 방도가 생각나지 않았다. 왼편 발의 발끝에서부터 너분다리까지 붕대로 꽁꽁 싸맨 부자연한 몸이 아닌가. 간신히 문 밖으로 나간다고 해도 한 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형편이 아닌가.

그러나 우식이에게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벌벌 기어서라도 가던 길을 계속하여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생각만 점점 더 강해져 갔다.

그러나 그것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격〉이였다. 어떻게 특무놈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방안에서 뚜꺽뚜꺽하며 특무놈이 걸어 다니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우식이는 그 소리마저 듣기 싫었다.

바로 이때였다. 밖에서 요란스럽게 문을 두드리며 왁작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더니 조금 후에는 다시 이방 저방으로 돌아 다니며 유리 문 뚜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조금 후에 우식이가 들어 있는 방의 유리 문을 두드렸다.

《선생님 계시나요.》

하고 부르는 소년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식이는 얼굴을 묻었던 이불을 제치고 밖을 내다 보았다.

유리 문 밖으로 한 소년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어느듯 유리 문을 드르룽 열고 다짜고짜 안으로 들어 왔다. 그는 창국이였다.

창국이는 안으로 들어 오다가 특무놈과 시선이 딱 마주쳤다. 줄곧 경찰서에 드나드는 특무놈을 발견하자 창국이는 주춤하고 섰다.

특무놈은 재빠르게 홀아비 손가락을 입에다 대며 매서운 눈초리로 창국이를 노려보는 것이였다.

눈치 빠른 창국이는 그것이 아는척 하지 말라는 신호라는 것을 곧 알아 차릴 수 있었다.

《웬 아이냐.》

특무놈은 시침을 따고 물었다.

《경찰서 소사예요. 아이구 큰 일 났어요. 도끼루 발등을 찍었거든요. 빨리 약을 좀 발라야 겠어요.》

창국이는 엉금엉금 안으로 걸어 들어 갔다.

《의사는 벌써 안으로 들어 간지 오랬는데! 안 방으로 가서 찾아 보아라.》

특무놈의 쌀쌀한 대답이였다.

《아이구 죽겠어요. 이제는 한발 걸음도 옮겨 놓지 못하겠어요. 미안하지만 의사 선생을 좀 찾아 줄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며 창국이는 우식이의 침대 모서리에 걸쳐 앉았다.

특무놈은 할 수 없다는 듯이 복도로 나가더니 초인종 단추를 눌렀다.

이 자이에 창국이는 작은 쪽지를 우식이의 손에 꼭 쥐여 주었다.

(다음 호에 계속)



# 화학 섬유에 대한 이야기

## ( 1 )

리 상 균

우리 당은 전쟁의 어려운 시기부터 벌써 우리 인민들의 행복한 장래를 위하여 화학 공업을 발전시켜 오늘과 같은 비날론, 염화 비닐 공장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조선 로동당과 경애하는 김 일성 원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비날론이고 염화 비닐이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동무들은 없는지요? 비날론이나 염화 비닐뿐이 아닙니다. 지난 5월 7일 비날론 공장 준공을 경축하면서 5월의 명절을 기념하는 함흥시 군중 대회에서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님은 우리 나라에서 비날론과 함께 비크론, 니트론, 나일론, 뇨소 수지등 화학 공업을 발전시키며 신의주와 청진시에 화학 섬유 공장을 빠른 속도로 건설할 것을 말씀 하셨습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오래 전부터 삼이나 목화를 심어 베옷이 아니면 무명 옷을 해입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작 해야 누에를 쳐서 명주 옷을 해 입었을 따름입니다. 이처럼 옛날에는 직접 실을 뽑을 수 있는 자연 원료로서 입는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옷감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가 많아짐에 따라 이런 자연 섬유만으로서는 도저히 이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게 되였습니다.

더구나 우리 나라에는 목화가 그리 많지 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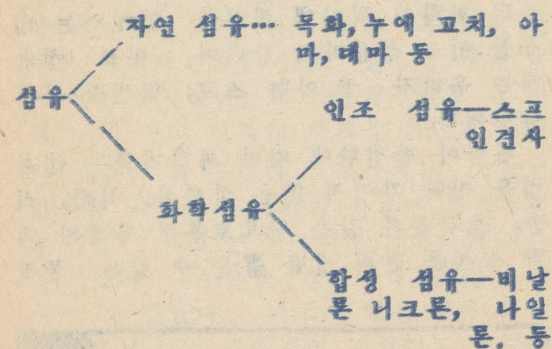
그리하여 우리 당은 인조 섬유를 얻어 내는 방법을 과학자들에게 연구시켜 왔습니다. 우리들은 백양 나무 같은 나무를 째 보면 한 쪽으로 줄 간 것이 알리며 갈'대나 짚도 손으로 째 보면 섬유와 같은 성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대로 목화나 삼처럼 좋은 실을 뽑을 수 없지만 거기에다 적당한 화학적인 처리를 하면 아주 좋은 섬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인조 견사입니다. 즉 자연에 있는 섬유성 원료로부터 화학적 처리에 의하여 얻어지는 섬유를 인조 섬유라고 합니다. 인조 섬유에는 우리가 잘 아는 스프, 인견사 등이 속합니다.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과학자들은 섬유성을 전혀 가지지 않은 석회석, 석탄, 석유, 소금등과 같은 원료로부터 복잡한 화학 공정을 걸쳐 실을 뽑을 수 있는 물질

을 만드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먼저 발견된 이러한 섬유가 나일론이였습니다. 비날론, 비크론, 니트론 등도 다 이런 종류의 섬유입니다.

이렇게 섬유성을 전혀 가지지 않은 자연 원료로부터 얻어지는 섬유를 우리는 합성 섬유라고 부릅니다.

인조 섬유와 합성 섬유는 그의 제조 원료의 성질은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둘 다 화학적 처리를 거쳐서 얻어지는 섬유이므로 우리는 이것들을 통털어 보통 화학 섬유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프라스트마스에 대하여 이야기 합시다.** 여러분은 산에 가서 흔히 소나무 송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른 가루처럼 있다가도 더운 데 두면 물러지지요?! 식히면 다시 굳어지고… 여러분은 요지음 떼써있는 치솔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이 치솔은 더운 물로 쓰면 녹실녹실하여 쓰기 좋지만 찬물로 쓰면 어쩐지 쓰기 나쁩니다.

염화비닐 수지로 만든 혁띠도 그렇습니다. 겨울에 너무 찬 데서는 잘못하면 불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여름에는 연하여 쓰기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뜨거운 곳에 두면 녹아서 혁띠가 볼꼴 없이 된답니다.

이렇게 더운 데서는 물러지고 찬데서 굳어지는 성질을 리용하여 옛적부터 사람들은 여러가지 물건을 만들 때 썼는데 이러한 성질을 가소성이라고 하며 가소성을 가진 물질로 만든 물건을 가소물 (또는 프라스트마스) 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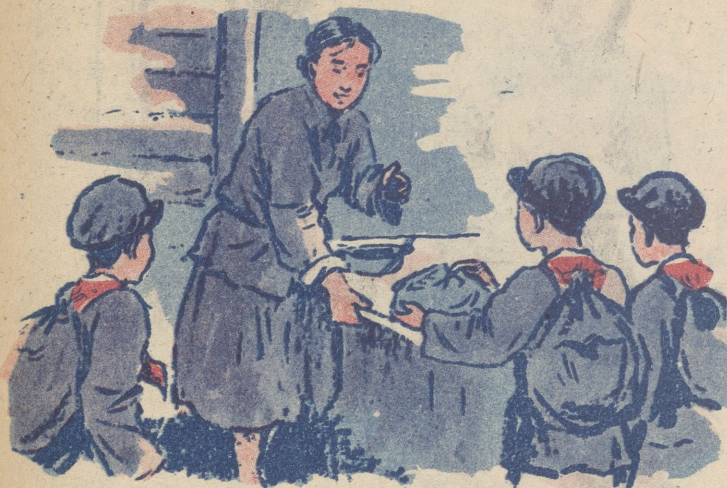
프라스트마스는 보통 여러가지 물질을 섞어서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물질이 수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프라스트마스를 만든다고 하는것은 사실 수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통 《프라스트마스》라는 말과 《수지》라는 말을 특별한 분간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또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프라스트마스 공업도 오랜 력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자연에서 흔히 얻어지는 송진을 비롯한 나무즙들과 빗치 아스팔트 등을 리용하여 프라스트마스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수지라는 말은 사실 송진 같은 성질이 있다하여 쓰이는 말입니다. 자연에 있는 수지를 자연 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사람들은 세루로이드와 같은 결이 좋은 수지를 만들어 냈습니다. 세루로이드는 뜨거운데 놓으면 물러집니다. 세루로이드 안경테는 이 성질을 리용하여 만듭니다. 세루로이드는 목화 같은 좋은 원료로부터 일정한 화학적 처리를 거쳐서 얻어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연 수지나 세루로이드와 같은 것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에는 합성 섬유와 같이 석회석 석탄, 석유, 소금등과 같은 눅는 원료로부터 합성 수지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나라에서 작년에 공장이 건설되고 현재 많이 생산되고 있는 풀리염화 비닐 수지 (보통 염화비닐 수지라고 합니다.)도 이 합성 수지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합성 수지로서는 페놀 수지, 뇨소 수지, 다시안더아미드 수지 등도 들수 있습니다. 풀리에힐렌 수지, 풀리스티롤 수지 등도 여기에 속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치솔은 풀리스티롤이라는 수지로서 만든 프라스트마스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 그는첫아동단원이였다 (6)

글-박 용호
그림-최 순천

(43) 병원에서였다. 춘삼이가 유격대 화식병 아주머니에게 노루 고기를 내놓으며 말하였다.

《이걸 받으세요. 그러구 아저씨들께 대접해 주세요!》

《아니 너희들은 또 먹지도 않고 이리로 가져 왔구나!》

《아니예요! 우린 실컨 먹었어요.》

(44) 이들이 한참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유격대 후방 가족인 덕성 할아버지가 찾아 오셨다.

지팽이를 짚고 온 할아버지의 왼쪽 손에는 무언가 떡잎에 싼 것이 들리워 있었다. 그는 굶주려 걸음거리도 허전허전 하였다. 모두 의아한 눈으로 덕성 할아버지를 지켜 보는 것이였다.

(45) 로인은 말 없이 떡잎에 싼 것을 화식병 아주머니에게 내 밀었다.

《군대동무! 받으슈! 이걸 군대 동무들에게 드리시우.》

《아니 이건 할아버지 잡수시라고 보낸 노루 고기 아니예요?》

《먹지 않아두 배가 부른 것 같소다. 자! 어서 받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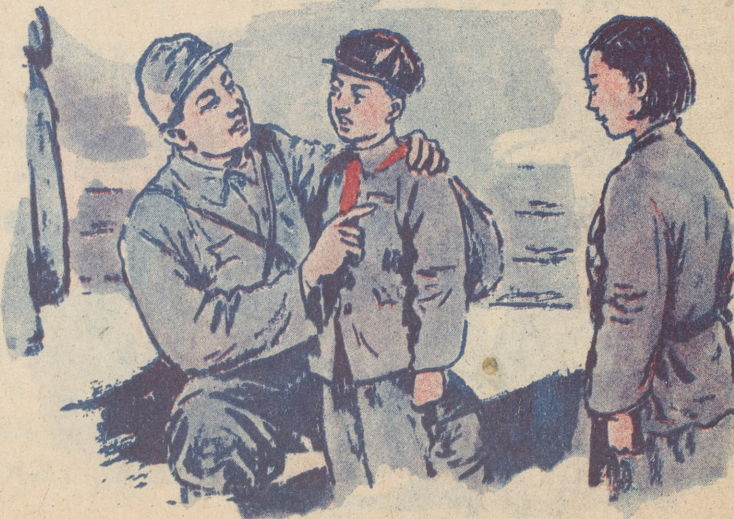
이것을 보는 문섭이의 가슴은 찌르륵해졌다.

(46) 보름이 지났다. 봉희 누나가 문섭이를 불렀다. 그가 누나를 찾아 갔을 때 봉희 누나가 그에게 노루 가죽을 이겨 곱게 지은 신한 켤레를 내놓았다. 《받아요》 공청 지부의 위임으로 내가 짬짬이 만든 거예요.

문섭이는 너무나도 감격하여 말도 하지 못했다.

(47) 공청원 누나며 조직의 동무들의 따뜻한 사랑과 지도 속에 문섭이는 몰라 보게 달라졌다. 그는 아동단 생활에서 누구보다 모범이 되였고 항상 앞장서 나갔다. 하루는 공청 지부에서 문섭이를 불렀다. 그가 지부에 가니 공청 비서와 봉희 누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48) 《문섭동무! 동무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려 하는데 해 낼 수 있겠소?》 하고 비서 형님이 물었다.

《네, 어떤 일이래두…》 문섭이는 굳은 결심의 빛을 얼굴에 띄우며 말했다. 비서 형님은 빙그레 웃으며 그에게 앞으로 근거지 일대 그리고 적 통치구 일대에 대한 통신망을 펴며 지형과 지리를 정찰할 데 대한 임무를 주었다.

(49) 그날 밤 문섭이는 온밤을 자지 않고 임무를 훌륭히 해 낼 데 대하여 생각하였다. 그는 비서 형님이 가르쳐 준 한가지 한가지를 곱씹어 생각하는 것이였다.

(50) 다음 날 문섭이는 선발된 정찰조 아동단원 10명과 함께 일에 착수하였다.

그는 우선 높은 곳에서 정찰을 할 수 있는 삐라미트를 짜는 훈련을 시작하였다. 힘겨운 훈련이였으나 문섭이는 이를 훌륭히 해내였다.

(51) 이런 훈련이 끝난 다음 문섭이는 다시 근거지 일대와 적 통치 구역 근처의 산의 높이를 측량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이것은 아동단 곤봉을 가지고 산의 높이를 재는 일이였다. 그는 학원에서 배운 산수를 밑천으로 이일을 훌륭히 해내였다.

(다음 호에 계속)

## 전기 절약에 힘써요

여보세요 소년단 편집부입니까?

네? 황해남도 신천군 락원 중학교 단체 1 분단 통신원 송 근식입니다.

전기 절약 말입니까?

네, 우리 분단 동무들은 자강도 희천군 희천 중학교 오 명숙 동무의 모범을 배워 누구나 전기 절약에 힘쓰지요.

매일 밤 복습이 끝나면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꼭꼭 전등을 끄고 주무시게 하지요. 김 순영, 최 수남 두 동무는 배전부 아저씨들을 찾아 가서 전기 절약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다가 인민반 회의 때면 가서 이야기 했습니다.

《전등를 하루에 한 시간씩만 절약하면 1년간 절약한 전기로 약 2억 4천만 메터의 천을 짤 수 있어요.

그리고 강재는 28만 7,634톤이나 생산한대요. 그러니 한 초 동안이라도 전기를 헛쓸 수 있겠어요.》라고 말이지요.

그들은 마을에다 전기 절약에 대한 구호도 써 부쳤습니다.

네, 오늘은 이만하겠어요. 안녕히 계십시오.

### (이것을 아십니까?)

## 어떤 것들이 외화로 될 수 있는가?

우리 나라의 산과 들 바다에는 외화 (외국에 수출하여 얻는 돈)로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쓸모 없다고 돌보지 않는 그러한 것들까지도 외화로 될 수 있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손으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란 어떤 것들일 가요?

우리가 《꼬마 7개년 계획》 활동으로 하고 있는 수세미 오이, 호박씨 같은 것도 외화로 될수 있습니다.

산에가도 외화로 될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약재, 약품로서는 메'대추 나무, 오미자, 함박꽃 뿌리, 살구 씨, 복숭아 씨등입니다.

각종 나무 씨로서는 아까시야 씨, 이깔나무 씨, 잣, 갬알, 버섯 (송이, 싸리, 참나무 버섯)등입니다.

우리가 흔히 쓸모 없다고 여기는, 닭 털, 돼지 털, 소 뿔, 소 발통, 소 뼈, 꿩 꼬리, 등도 좋은 외화로 될 수 있습니다.

바다에가도 우리들의 손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김, 미역, 해삼, 조개 껍질, 굴 껍질 등입니다.

모두다 외화로 될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모아 수매시킵시다.



(유희)

# 《물 말》 놀 이

**1) 준비할 것**

직경 5~7cm, 길이 1m정도 되는 둥근 나무의 량쪽 끝에 1~1.5m 정도의 바'줄을 맨 《물 말》을 준비한다.

**2) 유희 조직 및 유희자의 배치**

ㄱ) 유희자들은 3명이 한 조가 된다.

ㄴ) 매 유희자들은 출발점에 《물 말》을 가지고 일렬 횡대로 선다.

**3) 유희 방법**

ㄱ) 《주의》 신호에 의하여 유희자들은 그림과 같은 자세를 취한다.

ㄴ) 《출발!》하는 신호에 의하여 바'줄을 잡은 두 사람은 앞으로 뛰여 나가며 물 위에 엎딘 유희자는 나무를 쥐고 발로 물장구를 친다.

ㄷ)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먼저 목적지에 가는 편이 승리한다.

**4) 주의 할 점**

ㄱ) 물 깊이가 1 m 이상 되는 곳에서 하지 말아야 한다.

ㄴ) 바'줄을 어깨에 메여서는 안된다.

ㄷ) 물 우에 엎딘 사람은 걸어서는 안니 된다.

### (이것을 아십니까?)

## 수영 할 때 주의할 점 몇가지

1. 수영장은 물이 깨끗하고 물'살이 세지 않고 깊지 않은 곳을 선택하여야 한다. 물 밑을 모르는 곳에서는 절대로 수영을 하지 말아야 한다.

2. 몸이 불편할 때는 물에 들어 가지 말아야 한다. 몸에 열이 있거나 머리가 아플 때, 몸이 몹시 피로했을 때는 물에 들어 가지 말아야 한다.

식사를 한 후에 곧 물에 들어 가서는 안된다. 적어도 1 시간 이상은 된 다음에 들어 가야 한다.

3. 물에 들어 가기 전에는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해야 한다.

팔, 다리, 어깨 등의 근육을 잘 주므르며 헤염치는 동작처럼 팔, 다리, 허리 등을 굽혔다 폈다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물 안에서 쥐가 일어날 수 있다.

귀에 물이 들어 가지 않도록 미리 솜으로 귀'구멍을 막는 것이 좋다.

4. 갑자기 물에 들어 가서는 안된다.

심장에서 거리가 먼 부분 즉 팔, 다리부터 물에 적시고 차츰 온 몸을 적시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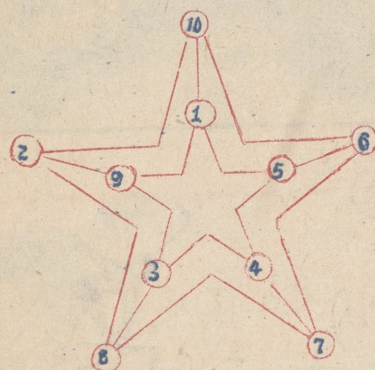
그렇지 않으면 심장 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

5. 수영을 하고 나와서는 마른 수건으로 몸을 닦고 물'기가 없게한 다음 옷을 입어야 한다.

## 현상 문제

(1) 이 두더지를 누가 어떻게 이 마른 나무 가지에 끼워 놓았을가요?

(2) 이 버섯들은 어떻게 높은 젓나무에 걸렸을가요?

5월호 현상 문제 답 및 당선자

평안남도 안주군 운학 중학교 최 명옥
평안북도 룡천군 북중 중학교 최 상기
평안북도 철산군 검암 인민 학교 김 금옥
자강도 동신군 동신 중학교 김 구
함경남도 신창군 방가대 중학교 손 성운
황해북도 신평군 만년 중학교 한 영민
개성지구 판문군 선적 중학교 김 순덕
개성시 선죽 중학교 김 중룡
함경북도 어랑군 봉강 중학교 리 주경
함경북도 웅기군 웅기 중학교 주 경호
평양시 기림 중학교 라 운희
량강도 삼지연군 삼지연 중학교 고 래송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소년단》 1961년 제 7 호 (총 141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민청 출판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32316 값 25 전 150,000부 발행



① 《매일 아침마다 하는 랭수 마찰은 이렇게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라고 강계시 북문 중학교 림 영준 동무는 말한다.

② 즐거운 등산의 하루(석암 야영소에서)

③ 무더운 여름 씨원한 바다에 몸을 잠그는 기쁨은 어떠하리!
그보다 더 좋고 기쁜 것은 몸이 튼튼해지는 것이라네!